

2011.03.30 NO.103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돌주먹 여인이라고?… 이시영 “그래도 나는 연기자다” P36~37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 “바꾸고 바꿨더니 세계 최고 되더라” P34~35

이젠 에너지강국 자주율을 높여라 P19~33



확 바꾸겠습니다!

자연, 사람, 동물이 행복한 「청정 · 선진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 ✔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 즉시 **축사에 드나드는 차량부터 통제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력하게!
- ✔ 평상시에도 축산농장 **소독 · 출입 상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방역책임을 따져 보상**도 공정하게!
- ✔ 입국과정에서 **소독을 강화**하여 가축질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 ✔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매몰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걱정없게!
- ✔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인 방역관리 체제**를 확고하게!
- ✔ **축산업허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여 친환경 선진축산을 더 내실있게!

*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축산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새로운 동력, 녹색 에너지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 에너지대학원 교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현대문명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인류는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기계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세기 1백 년간 이루어진 기계문명의 발전은 그 이전 인류사 전체를 통한 발전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다.

단시간 내에 인류문명이 전 지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의 적절한 이용 덕분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전달하는 동력장치인 가스터빈, 엔진 등이 개발됐고 이를 활용해 발전소가 건설됐다. 수송을 위한 철도, 자동차, 비행기 등의 물류수단과 통신수단도 발전했다.

문제는 현재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 중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은 앞으로 약 1백50년,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 세대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문제는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다음 세대일 것이다.

기존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기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합의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의무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화석연료 고갈을 앞두고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산업경쟁력과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체에너지 확보가 시급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녹색 에너지 확보를 통한 녹색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풍력발전은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분야다. 2015년 4천억 달러로 확대될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자력에너지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우리의 경우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퍼센트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태양광, 태양열 등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는 반도체 생산 공정과 유사하다. 풍력은 조선산업의 핵심인 대규모 터빈엔진 생산 공정과 거의 일치한다. 다행히 이 두 주요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확실하게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2천4백30억 달러이던 풍력, 태양광 등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2배인 4천억 달러, 2020년에는 1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전지, 풍력발전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세계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성격상 초기 시장진입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전력보조금제도(Feed-in Tariff)를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기업 또한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G

Contents NO.103 2011.03.30 통권 204호



기 획 특 집

한국 미래를 위해 에너지 찾아 3만리

세계 10대 무역강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원유수입국이기도 하다. 우리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 대에 진입했고 대형유전 개발 참여를 보장한 한·UAE 양해각서(MOU) 체결로 한 번 더 도약했다. 단숨에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감 노력 등을 병행한다면 '중동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 현실은 머지않아 과거가 될 것이다.



표지 이야기 지난 3월 17일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에서 챔피언이 된 배우 이시영. 여배우의 고정관념을 깨고 복싱에 도전해 '핫스타'로 떠올랐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3.3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16


56


60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31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천안함 재발되지 않게 국민들 힘 모아야

"천안함 피격 소식에 놀란 가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기를 맞이하는군요. 자식의 묘석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내 아들 일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 번 국방의 힘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된 걸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 마음과 힘을 합쳐 다시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양옥자**

'소통칼럼'으로 영화 다시 보니 흐뭇

"소통칼럼의 영화 〈그랜 토리노〉 이야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년 전 시사회를 통해 봤을 때 주인공 할아버지가 이 영화감독인 클린트 씨와 겹쳐 보였거든요. 영화 속 '코왈스키'처럼 누릴 것 다 누려 보고 살 만큼 산 노(老)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있게 한, 자신이 사랑한 미국과 동시대인들에게 '용서'라는 위대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어 오랫동안 곱씹어 보게 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알고 있는 누군가의 글을 읽으니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처럼 '용서'라는 노력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 봅니다." **이진영**

국내 원전시설에 대해 한시름 덜어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관련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원전시설에 대한 조바심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호에서 엄격한 기준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내진설계를 했다는 기사를 읽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일본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영**

천안함 기사 읽다 함께 눈물 쏟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아들 민평기 상사와 사별한 윤청자 여사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도 아들의 사망 보상금 1억원을 선뜻 국가에 기탁하고 그것도 모자라 중소기업에서 보내온 성금마저 국가에 기탁한 윤청자 여사의 사연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흐느끼는 윤청자 여사를 보니 저의 얼굴도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박명선**

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99호 44쪽 〈'ABC' 대신 '가나다라' 배우자〉 기사에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하는 사례까지 생겼다"는 확인 결과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하지 않아 바로 잡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이 기사, 아쉬워요

"헷갈리는 용어 설명 해줬으면"



일본 원전의 방사성물질이 한국까지 올까 봐 걱정했었는데, '방사성물질 한국까지 못 온다'는 기사를 보고 안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용어의 차이를 설명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쓰나미'를 '지진해일'로 바꿔 표현한 우리말 순화노력은 보기 좋았습니다. **주영주 (주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백자청화 더 자세한 정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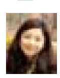
'18세기 백자청화운룡문호' 기사는 미술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미흡합니다. 아무리 금전적 가치가 잣대로 작용한다지만 역사와 뜻이 담긴 미술품에 이런 기사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장준희 (대학생,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웃고 있는 사진, 마음에 걸려"



'추모 음반 〈백령도 물새〉 작곡가 김병환씨' 기사에서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의 사진이 실렸는데요. 웃고 있는 세 분의 표정이 기사 내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사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담긴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실렸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경숙 (주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일본 지진 성금방법 함께 소개했으면"



'힘내세요 일본, 고마워요 한국' 기사로 참사 속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유명연예인의 기부만 다뤄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성금을 전달할 수 있는 단체, 전화번호, 방법 등을 소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 (대학생,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알립니다

충성! 앱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병무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병무행정 정보를 서비스받을 수 있는 앱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정보와 서비스 부족으로 느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아이디어라면 모두 환영한다.

접수 기간 | 4월 16일까지
접수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의 '팝업존' 또는 '공지사항' 통해 응모
결과 발표 | 4월 말 예정
지원 혜택 | 병무청장 표창 외 소정의 상품수여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81 www.mma.go.kr

재외 한국문화원 CI 국민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 홍보의 핵심 거점인 재외 한국문화원 브랜드화를 위해 CI를 공모한다. 심벌, 로고 타입, 시그너처(심벌, 로고조합) 등 세 분야이며,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담으면 된다.

접수 기간 | 4월 22일까지
접수 방법 |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www.kocis.go.kr)에서 접수서류 등록
결과 발표 | 5월 27일
지원 혜택 | 시상 외 소정의 상금 수여
CI 공모전 운영사무국 · 씽굿 ☎ 02-322-7005 www.ithinkgood.c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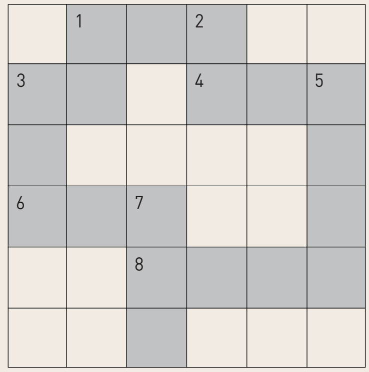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삑'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면 종료. 전화료 약 1백40원.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4월 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서해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이름.
3. 냉이, 달래, 미나리, 도라지, 두릅 등. 콩OO, 취OO.
4. 휘발유, 경유, 가스 등의 가격이 한껏 비싼 것을 이르는 말. "OOO 시대에는 에너지 절약만이 살길이다."
6. 옛날 역원(驛院)이 있던 서울시 용산구의 동 이름으로, 외국인 관광 명소가 되었죠.
8. 자기와 관계있는 일이나 물건으로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

세 로

1. 새로 나온 과일이나 갓 잡은 생선 등을 이렇게 부르죠. "바다에서 금방 낚은 OO이라 맛있습니다."
2. 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 따위를 보관하는 궤.
3.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일. 봄OOO.
5.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봄이 오자 화단 OOOO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7. 원자핵의 붕괴나 핵반응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동력 자원으로 쓰일 때의 원자핵 에너지.

〈Weekly 공감〉 101호(3월 1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누에 **4** 너털웃음 **6** 메시지 **8** 활어회 **9** 기러기
세로 **2** 에너지 **3** 두메 **5** 음악회 **7** 시래기 **8** 활기

〈Weekly 공감〉 101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난희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김승원 · 충북 제천시 청전동
박은숙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조윤경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홍종우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무토 주한 일본 대사

"한국의 온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3월 23일 "지진피해에 대한 한국 국민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한일관계는 한층 깊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의 진정한 친구"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일본공보문화원에 한국의 지원을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형현수막이 내걸렸다.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3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을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국 국민의 온정에 매우 감격했다"고 했다.

그는 "긴급구조대의 신속한 파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지원의사 표명, 전국적인 모금활동까지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도와주고 계신 데 대해 일본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일본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마치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입은 듯 아픔을 함께하며 도와주고 계신 한국은 일본의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건물 벽에는 한국 국민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국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을 일본 국민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종교계는 현지에 구호팀 파견 봉사활동

무토 대사의 글은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네티즌들에게 전파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이 좋고 싫은 것을 떠나 인간적인 온정으로 도왔는데 왠지 뿌듯하다", "물론 대지진과 독도문제·역사왜곡은 별개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특유의 온정으로 이뤄진 성금이니 빨리 재기하길 바란다", "좋으나 싫으나 이웃국가라는 한국인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종교계는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구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이 파견한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진 5명은 센다이시에서 현장을 조사하며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들어갔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센다이 시내 인근의 한 불교 신자 아파트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현지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한

편 본진 도착을 앞두고 피해지역 구호활동과 지속적인 재건활동 지원방안 등을 현지 단체와 논의한다.

선발진 팀장을 맡은 묘장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많은 현지조사와 활동을 통해 긴급재난구호봉사대 본진의 정식 투입이 가능해지는 순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3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국제 NGO(비정부기구)인 '해피나우'와 함께 일본 센다이시에 '한국교회 일본 동부 간토 대지진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긴급대책본부는 센다이 한인 사랑의교회와 일본 개혁교단연맹 센다이교회 등 두 곳에 본부를 설치하고 피해가 심한 미야기, 이바라키, 후쿠시마현 등을 지원한다.



연합

서초구와 대한적십자사가 3월 23일 구청 서초플라자에서 진행한 일본 대지진 피해주민 돕기 성금모금행사에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하고 있다.

NGO 단체 '굿피플'도 일본에서 구호활동을 벌였다. 굿피플 긴급구호팀은 최근 센다이시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오사키시 후루카와 지역과 이시노마키 시내 초등학교에서 이재민들에게 담요와 손전등, 식료품 등 2만5천 달러(약 2천8백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나눠줬다.

문화예술계에서는 한류스타들의 기부행렬이 계속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홍보대사인 배우 장동건은 지난 3월 17일 2억원을 기부했고 유니세프 특별대표로 활동 중인 배우 원빈 역시 2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류스타 원조인 배우 배용준은 이미 10억원을 기탁했고, 이병헌도 7억원을 기부했다. 배우 최지우, 류시원은 각각 2억원을 냈고 배우 장근석도 일본 적십자사에 1천만 엔(약 1억4천만원)을 기부했으며 가수 김현중, 안재욱은 각각 1억원을 냈다.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을 기부했다. 빅뱅·투애니원의 소속사 YG는 5억원, 2PM·2AM의 소속사 JYP는 3억원을 각각 기부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출연자 일동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억원을 냈다.

가수 김창완은 동료 음악인들과 함께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V홀에서 '와이 온 어스(Why On Earth)'라는 타이틀로 열린 공연에는 김창완밴드를 비롯해 장기하와 얼굴들, 전제덕, 크라잉넛, 박기영, 서울전자음악단, 가자미소년단, 옐로우몬스터 등이 대거 참여했다.

김창완·임형주 자선 콘서트 열어

팝페라 테너 임형주도 3월 30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자선 콘서트 '뷰티풀 위시'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일본 대지진 피해자 및 해외 불우환자 돕기에 기부한다. 3월 28일 발매하는 음반 '뷰티풀 위시' 수록곡 중 하나인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Bridge Over Troubled Water)를 헌정곡으로 정하고 이 곡의 수익금도 기부할 계획이다.

서울바로크합주단은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33회 정기 연주회의 티켓 수익금 전액을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부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는 1억원의 성금과 함께 '박지성 재단(js-foundation.org)' 홈페이지에 '일본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위로의 글을 올렸다. 일본 오릭스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 선수도 이재민 돕기에 써 달라며 1천만 엔을 기부했다. 역시 일본에서 활동중인 프로골퍼 김경태와 전미정도 각각 1천만 엔씩 기부했다. G

글·서일호 기자

“상처는 복구되질 않는다”… 그들도 우리처럼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시위를 ‘지진 희생자 추모집회’로 바꿔

“지금부터 10분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배상 촉구 시위 피켓 대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재일동포, 일본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적은 피켓이 등장했다.

1992년 첫 시위가 시작된 이래 961회째를 맞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이날 수요시위는 ‘일본 강진 희생자 추모집회’로 변경, 진행됐다. 수요시위가 추모집회 형식으로 진행된 것은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84) 할머니의 제안으로 진행된 추모집회는 정대협 측의 간단한 성명발표와 10분간의 침묵, 그리고 묵념만으로 끝났다.

뉴시스



지난 3월 2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대지진 성금모금을 하고 있다. 분노와 상처를 잠시 접고 모금함에 참여하는 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은 많은 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날 할머니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분노를 잠시 접고 상처를 인류애로 감싸는 모습이 감동적이기에 앞서 존경스럽다”고 표현했다.

간단한 성명 발표후 10분간 묵념

3월 23일 정오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62차 수요시위에선 모금함이 등장했다. 모금활동은 지난 16일 일본 대지진 추모집회에 참석했던 이용주(84), 길원옥(84), 이옥선(84), 김순옥(89), 박옥선(86) 할머니의 제안에 의해 시작됐다.

일본 미야기현에 살다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도쿄로 거처를 옮긴 재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89) 할머니 및 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최고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순덕(93) 할머니를 비롯해 길원옥 할머니와 김복동(86) 할머니가 기부에 참여 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모금을 처음 시작한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모인 금액은 총 2백19만원이다. 4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시위와 정대협 홈페이지(www.womenandwar.net)를 통해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은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 및 복지에 힘쓰는 일본 ‘재일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전달할 계획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대지진은 언젠가는 복구가 되겠지만, 상처는 복구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구제역과의 전쟁' 1백16일 만에 '끝'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구제역 종식이 선언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신고된 의심축에 대한 구제역 양성판정 이후 1백16일만이다.

정부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번 구제역 확산 원인분석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의 전국 확산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2주) 중 경북 안동에서 경기 파주로 전파되고,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됐다. 둘째, 경북에서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초기 판단착오로 5일간 차단방역이 지연됐다. 셋째, 지난겨울 유례없는 강추위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졌고 소독 등 방역효과는 저하됐다. 넷째, 구조적인 문제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했고, 밀식사육 등 축산업 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에 취약한 구조였다.

이 같은 원인분석에 따라 문제점과 반성해야 할 점들이 제기됐다.

공무원 등 연인원 1백97만명 방역 · 매몰에 동원

우선 발생 초기에 강력한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 '주의' 경보가 발령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발생 즉시 최고 경보 단계인 'Red'가 발령된다.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고,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국내에서 다섯번째,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인 이번 구제역은 달갑지 않은 기록들도 남겼다. 첫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전국 11개 시도의 75개 군에서 1백50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인 백신접종 전까지는 예방차원에서 매몰처분이 이뤄져 전국 12개 시도의 81개 군에서 가축이 매몰처리됐다. 6천2백50개 농가에서 총 3백47만9천5백13마리가 땅에 묻혔다. 가축별로 ▲소 15만8백71마리 ▲돼지 3백31만7천8백64마리 ▲염소 7천5백35마리 ▲사슴 3천2백43마리 등이 매몰처리됐다. 지금도 전국 85개소의 가축시장이 폐쇄돼 있고 7백95개의 이동통제 초소가 설치돼 일부 지역의 가축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매몰처리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동원된 인원과 장비도 막대하다. 공무원 48만9천1백40명을 비롯해 군인·경찰·소방공무원·민간인 등 연인원 1백97만4천55명이 지난겨울 내내 구제역과의 전쟁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굴착기도 1만7천9백98대가 동원됐다. 재정 소요도 엄청나 매몰보상비 1조8천억원을 비롯해 3조원 가까이 투입됐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구제역 결산서

구제역 발생 시 · 군 (전국 처음 발생)	75곳
매몰 보상비	1조8000억원
구제역으로 인한 재정 소요	3조원
살처분 가축	347만9513마리
소	15만871마리
돼지	331만7864마리
염소	7535마리
사슴	3243마리
매몰처리된 돼지 비율	33.6%
매몰처리된 소 비율	4.5%
구제역과의 전쟁에 동원된 연인원	197만4055명
구제역과의 전쟁에 동원된 굴착기	1만7998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조선DB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농가도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구제역으로 기르던 돼지를 매몰처분한 경기 이천의 한 돼지농가에서 3월 16일 재입식을 앞두고 돈사 내부 청소를 하고 있다.

"아픔 딛고 청정 · 선진 축산 만들자"

정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번 구제역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구제역 신규 발생이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방역시스템을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시스템과 축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구제역 경계단계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3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총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과 함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는 지난 2월 25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이날까지 구제역 발생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구제역 경계단계가 하향 조정됐으나 정부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체계를 계속 가동할 방침이다.

방역 매뉴얼 완전 개편… 초동대응 체계 강화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방역 매뉴얼을 완전 개편한 것이다. 우선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4단계의 위기경보 중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외부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도 강화된다. 우선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이 확대되고 소독 대상도 기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로 늘어난다.

인접국가와의 '구제역 협력'도 강화된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과는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해 항원뱅크 공동운영 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분담 원칙 세워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높여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일은 농가와 농장이 한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된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도 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매몰보상금에 대해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매몰지 관리는 친환경적 처리 방안을 강구해 관리된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향후 매몰 이외에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 방식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3년간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해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내년 완성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 기관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로 통합된다. 지방 방역기관의 경우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 시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201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그리고 백신접종 등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제가 구축된다.

또한 백신전문 연구센터가 설치돼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는 사항이 '축산업 허가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의 축산업 등록제가 확대 적용된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4월 말까지 확정된다. G

글·박경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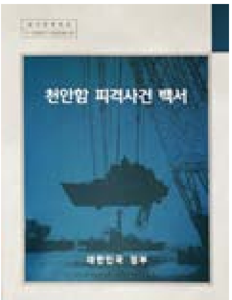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주요항목	내용
초동대응 체계 개편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 •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 도입,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전국의 분뇨 · 사료 차량 일정기간 이동통제
국경검역 및 국제협력 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 강화 • 소독 대상도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
축산농가 방역의식 고취	• 축산농장 출입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기록 관리 의무화 • 축산관련 차량 대상 등록제 도입
축산 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 매몰보상금에 대해 상황별 · 발생시기별 · 규모별 적정 보상기준 마련 •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백신접종 비용 일부 부담
매몰지 관리	• 소각 · 렌더링 · 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 •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 환경영향 분석 강화해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과 조치
중앙 · 지방의 방역조직 확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 • 2012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구축,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제 확립
예방접종 계획	• 올해 내 약 2천1백만 두에 대한 추가접종(2차 접종 6개월 후) 실시, 7월 이후 혼합 백신 접종 • 백신전문 연구센터 설치,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
축산업 허가제 도입	•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결정.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의 등록제 확대 적용 • 시행방안은 4월말까지 확정

천안함 대응 미숙도 '사실 그대로' 기록

국방부, 피격 1주년 맞아 백서 발간… 교훈 분석해 안보역량 강화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추모하는 열기가 전국을 달구고 있다. 추모제와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국방부가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물론 정부의 미숙한 대응까지 가감 없이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아 초기 대응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다.

사건의 원인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포함한 일부 의혹세력이 제기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대국민 설명과정에서 피격사건 발생시각 번복,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자료의 단계적 공개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의 맺음말 중 일부다. 이 백서는 천안함 피격 1주기를 맞아 발간됐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기록, 그 교훈을 분석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맺음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물론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실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자세로 공개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의 정신을 이은 것이다.



조선DB

청주대 군사학과 1학년 재학생 40여 명과 학부모 52명이 2011년 3월 1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합동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백서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사건발생 상황과 사후처리 ▲사건의 원인규명 과정과 조사결과 ▲희생자의 예우 및 보상 ▲정부의 대응 ▲국민과의 소통활동이 그것이다.

사건발생 상황과 사후처리

피격 당시와 그 직후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됐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초의 상황보고, 서북해역 경계태세 강화 등 초동조치가 중심 내용이다. 상황보고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군의 대응에 혼선이 생겼으며 생존자 구조가 지연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탐색구조 작전을 펼쳐 3월 28~29일에 함미와 함수의 함몰위치를 파악했지만 구조작전 중 한주호 준위가 전사하고 진해의 해군 탐색구조 전력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백서는 적었다.

사건의 원인규명 과정과 조사결과

사건발생 후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도움도 받았다.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50여 일이 투여됐다.

그 결과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6월 14일에 유엔안보리에 공식 보고했다.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발표는 예상치 못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발표 시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였기 때문이다. 또 종합발표 설명 당시 어뢰의 실물 크기 그림을 잘못 제시해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희생자의 예우 및 보상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전원을 전사처리하고 화랑무공훈장을 서훈했고


조선DB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청계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46용사 및 UDT 한주호 준위 추모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탐색구조 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도 전사처리하고 충무무공훈장을 서훈했다. 유가족에겐 제도적 법률적 지원을 했고 취업과 장학금, 주택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약속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정에서도 여러 과제를 남겼다. 희생자의 서훈과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떠올랐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의 직무 특성을 감안한 보상기준도 요구됐다.

정부의 사태처리를 위한 제반 노력

사건의 원인이 규명된 후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천명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곧이어 남북교류협력 중단을 골자로 한 대북조치가 이어졌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가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보태세를 강화했다. G8 정상회담 등 3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비롯한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 외교를 통한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지적됐다. 국가적인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 대응이 외교안보수석실 위주로 이루어져 각 부처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했다.

국민과의 소통활동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에 대한 논쟁이 지속됐다. 이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나섰다. 온라인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렸고 각계각층에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성숙한 언론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G

글·변형주 기자

천안함 생존 안재근 예비역 병장, 또래 대학생들에 특강

“그날 함께했던 전우들 잊지 말아주세요”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나흘 앞둔 3월 22일 대구 계명문화대학에서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장병인 안재근 예비역 해군 병장을 초빙해 그날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것이다. 천안함 생존장병이 그날의 사건을 대중 앞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안함 생존장병 안재근씨가 3월 22일 대구 계명문화대학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스러져 간 그날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북한의 위협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2일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에 위치한 계명문화대학 부사관과에서 ‘천안함 영웅 안재근 수병 초청특강’을 들은 학생들의 공통된 소감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장병인 안재근(24) 예비역병장을 초청한 이날 특강은 그날의 사건을 대중 앞에서 증언한 첫번째 공개강연이기도 했다.

지난 2월 10일 만기 전역해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안재근씨는 이번 학기에 대구 계명대 화학시스템공학과 3학년으로 복학했다.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개인주의에 매몰된 듯했던 20대가 ‘Patriotism(애국심)’과 ‘Power n Peace(평화)’, ‘Pragmatism(실용)’에 눈뜬 젊은 보수층 ‘P세대’로 변신하고 있는 최근 흐름 때문일까. 특강이 부사관과 자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연장 안은 1백명이 넘는 부사관과 학생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드문드문 다른 과 학생들도 눈에 띌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1년이 지나도 유언비어 나돌아 안타까워

청중과 같은 대학생 신분이면서 강사로 나선 안씨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발표가 있었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함께 근무했던 장병들을 떠올릴 때면 그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강연 중간중간 눈시울을 붉히거나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1년 전 3월 26일 밤, 저는 함수 40밀리미터 함포 밑 격실에서 당직근무 중이었습니다. 밤 9시22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몇 초 만에 함 앞 부분이 확 들려버렸습니다. 발전기가 파손되면서 정전이 돼 함 내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장비와 구조물에 맞고 깔린 장병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그때 소형 손전등이 손에 잡혔습니다. 등화관제가 잘돼 밤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함 안에서 쓰려고 휴가 때 구입한 것이었죠.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손전등을 켜보니 대부분 피를 흘려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이구나’ 싶었지요.”

그날의 참혹하고 위급한 순간을 전하는 안씨의 증언에 강연장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장병들을 구조하고 함수(뱃머리) 쪽으로 나온 후 해양경찰청의 고속단정에 옮겨 탈 때까지의 악전고투를 설명할 때는 청중의 얼굴에 숙연함마저 감돌았다.

“고속단정을 타고 천안함을 떠나면서 그제야 함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함 뒷부분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됐지요. 1~2분 만에 천안함은 침몰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었죠. 군 생활 내내 함께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광경에 눈물이 절로 흘러

내렸습니다."

그 후로 기억하는 것조차 괴로운 시신수습과 장례절차가 이어졌다. 전사자 유가족들의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웃고 얘기하던 전우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잃은 충격은 모든 생존 장병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고 그는 털어놨다.

"전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지금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지요. 거식증으로 몸무게가 10킬로그램이나 빠진 장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잖게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안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좌초설, 내부폭발설 등 인터넷이나 일부 단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비록 수병 신분이었지만 2년여간 함정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살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북한의 도발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천안함이 늘 출동하던 해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해역에서 좌초했다는 설도 말이 안되지만 내부폭발이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병기병이라 잘 알지요. 탄약도 그대로 있었고, 유류탱크가 터졌지만 화재가 없었습니다. 진짜 내부폭발이 있었다면 기름에 불이 옮아붙지 않을 리 없지요. 하지만 화상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습니까."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상을 경험자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그는 대학생 청중에게 우리의 안보현실을 상기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잊고 있거나 잊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휴전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거죠. 제가 복무했던 기간에만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세 차례나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의 위협은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특강은 이런 말로 마무리됐다.

"백령도 남서쪽 바다에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날 특강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해 명예롭게 생각"

부사관과 학생은 아니지만 강연 소식을 듣고 강연장을 찾았다는 경찰행정학과 2학년 이동수(22)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읽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안 병장의 증언을 들으니 많은 의문이 풀리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부



국방일보

천안함에서 병기병으로 근무했던 안재근씨.

사관과 2학년 박정욱(21)씨도 "손전등 하나로 많은 장병을 구조한 얘기를 들으니 천안함의 진실이 보다 현실감 있게 와닿는다"며 "안 병장도 천안함 피격사건의 또 다른 영웅"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호응 속에 2시간 가까운 강연을 소화한 안씨는 생존장병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말을 남긴 후 강연장을 떠났다.

"어떤 분들은 경계근무에 실패한 패잔병들이 무슨 말이 많냐고 하시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산화한 분들을 영웅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때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생존장병들에게도 제도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

글 · 김가영 (국방일보 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과학자들이 긍지 갖도록 돕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새롭게 출범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고, 정부가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국과위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산·학·연의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4일 집무실에서 만난 국과위 김도연(59) 위원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산·학·연의 ‘개방’과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과위와 기존 국과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사무국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설치되어 국가 연구개발(R&D) 종합조정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했고 사무처 조직도 교과부 내 국단위 조직(약 40명)을 1백40명 규모의 독립 사무처로 확대했습니다. 기능과 위상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예산배분,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과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사업의 부처·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를 기획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주체 간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과학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과학기술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과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과위는 ‘관’이라는 정형화된 관념과 틀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무원이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상황과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구성·운영하여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현안들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월28일 출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지난 3월28일 공식 출범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 및 조정권을 갖게 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년 6개월간 몸담았던 울산대 총장직을 그만두고 국과위에 매진한다.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차관급)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과위의 행정을 지원할 독립 사무국의 직제도 확정됐다. 사무국 직제는 1관(기획관리관), 3국(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 조정국, 성과관리국), 15과로 구성되며 모두 1백40명이 일한다. 기존 교과부에서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맡았던 인력 37명과 기획재정부 인력 7명 등 총 44명이 국과위로 옮겼다. 주목할 점은 민간 전문가 43명을 외부에서 수혈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주도로 개발한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이자 우리나라 첫 기상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는 민간 전문가의 직접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과위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무처 조직이 아닌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의 경우 철저히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됩니다. 국과위 본회의의 경우 10명 중 민간 전문가는 8명입니다. 실질적 정책 및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지는 8개의 전문위원회 1백12명과 기초 및 지방 협의회 28명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저는 국가위가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도 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방향은 무엇인가요.

"기술과 산업이 융합·분화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서 결실을 맺어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지진 및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국가적 재난, 에너지 문제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너지·환경·보건·재난 재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R&D에도 투자를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처 간 중복투자, 역할중첩 등 비효율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향후 국과위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요.

"성과평가법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R&D 평가는 기재부에서 수행하되, 평가과정 및 결과를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공유하여 R&D 예산 배분 및 조정과 연계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과위의 전주기 R&D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R&D 전주기 관리를 위해서는 국과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 신규 R&D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R&D 예산 배분·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로 국과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과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할 겁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 577전략'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국과위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577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현재 국가 연구비는 15조원, 기업 연구비는 37조원 정도입니다. GDP의 4퍼센트에 육박하는 연구개발비를 2012년까지 5퍼센트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R&D의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R&D 투자유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R&D 기획·예산·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과학기술 7대강국'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G

글·서일호 기자





일러스트 · 유제민



기 획 특 집

에너지 자주독립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 10대 무역강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원유수입국이기도 하다. 우리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고 대형유전 개발 참여를 보장한 한·UAE 양해각서(MOU) 체결로 한 번 더 도약했다. 단숨에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감 노력 등을 병행한다면 '중동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 현실은 머지않아 과거가 될 것이다.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우리의 에너지 자주권과 직결된다. 사진은 한국석유공사가 LG상사와 공동 참여 중인 카자흐스탄 바셴콜 유전의 아다(ADA) 모습.

'에너지 천수답' 탈출에 국가 미래 달렸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원유·가스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는 지금 뜨거운 에너지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입에너지 의존율은 96퍼센트에 달한다.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국가의 미래까지도 좌우하게 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에너지 자주권 확보란 대전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꿩 대신 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 석유·석탄·천연가스 대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셰일유(Shale Oil)'다. 셰일유는 전통적인 원유와 달리 원유가 생성되는 근원암인 셰일층에서 회수하는 오일이다.

생산비용이 비싸 그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 2년간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유가가 상승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각) "이달 들어 미국의 석유 시추장비 설치 건수가 8백18건으로 지난 198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뿐 아니다. 중국 최대 해외유전개발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도 셰일유와 셰일가스 세계 최대 매장지역인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CNOOC는 지난해 셰일유와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미국 체사피크사의 이글포드 프로젝트 지분 3분의 1을 10억8천만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지난 1월 체사피크사가 보유한 와이오밍주 등의 다른 프로젝트 지분 3분의 1을 5억7천만 달러에 사들였다.

한국도 셰일유 열풍에 뛰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비전통 생산 유전을 확보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월 17일 미국 아나다코(Anadarko)사와 셰일오일 생산광구 지분참여(23.67퍼센트) 계약을 체결했다. 아나다코사는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 사업관련 선진기술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독립계 석유회사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어 지난 3월 18일 4개의 생산·개발 광구를 보



조선DB

유한 카자흐스탄 알티우스(Altius)사의 인수도 완료했다. 알티우스의 4개의 생산·개발 광구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인근에서 운영 중인 아다(ADA)광구와 개발경험, 시설 및 인력 공유가 가능해 비용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전민영 유전개발과장은 "이번 2건의 자산 인수로 우리나라는 매장량 1억7천만 배럴과 일일 생산량 1만6천5백 배럴을 확보해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약 0.5퍼센트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자주율 두 자릿수 진입

석유 부존자원(賦存資源)이 전무한 한국에 있어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향상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0.8퍼센트를 기록, 사상 처음 두 자리 대에 진입했다.

지식경제부가 최종 집계한 2010년 해외자원개발 실적에 따르면 2007년 4.2퍼센트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10.8퍼센트로 2.6배 상승했다. 해외유전개발 역시 영국의 다나(Dana)사 인수 등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퍼센트 증가한 64억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의 22억3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24개의 신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총 해외유전개발 사업 수는 34개국 1백80개로 확대됐다. 지난 2007년(1백23개)과 비교해 59개, 48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부단한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향상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최소 10억 배럴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유전 개발 참여는 우리나라의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5퍼센트 수준까지 단숨에 끌어올린 의미 있는 성과다.

이명박 대통령이 UAE 순방 중 거둔 이번 유전 개발 참여 계약체결로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안보'에 적지 않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아부다비 유전개발 참여로 단숨에 자주율 15퍼센트로

아부다비 유전은 가채굴 매장량 기준 11억5천만~13억4천만 배럴 규모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최대 규모의 유전이다.

최근 중동 시위로 유가가 배럴당 1백 달러가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며 에너지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7위의 무역대국임에도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6퍼센트에 달하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긴장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석유와 가스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불리하다.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82퍼센트에 달한다. 국내로 들여오는 가스의 65퍼센트가 중동산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무역대국의 위상도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과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상용화와 같은 에너지 고효율화 정책 등 '에너지 천수답 국가'에서 탈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이 에너지개발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이어 "첨단 기술력의 확보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고해상도 탐사자료 분석 등 정보기술(IT)접목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살려 자원개발기술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 머지않아 50퍼센트 자주개발률을 달성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2010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주 스마트그리드데이(Smart Grid Day) 선포식이 끝난 뒤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행렬이 제주시 구좌읍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까지 퍼레이드를 펼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전기와 쌍방향 대화… 녹색 성장 'On'

에너지와 IT의 똑똑한 융합… '촉진법' 4월 국회 의결만 남아

최근 스마트그리드(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들이 연이어 날아들었다. 스마트그리드촉진법(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 의결만 남겨 두게 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전력도 송배전설비 지능화, 스마트 미터 교체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4천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이후 2020년까지 2조3천억원, 2030년까지 3조7천억원 등 총 8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천명한 후, 이듬해 이탈리아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선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드디어 '도약'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을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바탕 '똑똑한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의 구축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제주도에 실증단지를 만드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해 1월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7조5천억원 투자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가 초기 핵심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에서 24조8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 제주도 실증단지 조성, 관련 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 1차연도 사업은 지난해 5월 말 마무리됐으며, 오는 5월까지 2차연도 사업이 마무리된다.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에 '의지 표명' 지난해 1월과 11월에는 세계에 우리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 그만큼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곳이 제주 실증단지다.

제주 실증단지는 정부의 단계별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나리오 중 1단계 사업이다. 제주에서 단지를 구축·운용해 신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단위로 확장해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 12월 조성이 시작됐으며 오는 5월이면 2차연도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때까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본단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는 통합적인 운영이 진행되는 '확장단계'다.

실증단지는 △스마트 파워그리드 △스마트 플레이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스마트 리뉴어블 △스마트 일렉트릭시티 서비스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분야에 한국전력·KT·SK텔레콤·LG전자·현대중공업·포스코ICT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제주도 구좌읍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전자신문

제주 실증단지에 설치된 IHD(In Home Display). 전력사용량 등을 보여준다.

지난해 1월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업계 관계자 2천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0 월드스마트그리드 포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에서 코리아스마트그리드위크(KSGW) 행사가 열렸다. 이 기간에는 스마트그리드 정부간 협의체(ISGAN) 1차 고위급 관료회의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스마트그리드 워크숍이 열렸으며, 제주 실증단지 종합홍보관과 각 컨소시엄별 체험관도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스마트그리드연합(GSGF) 미팅'에서는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이 GSGF 부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스마트그리드촉진법 제정으로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은 지난 3월 7일 열린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

스마트그리드촉진법 시행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다. 현행 제도에서는 에너지와 IT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사업인 스마트그리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됨으로써 관련 산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사업자 측면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G

글·유선일 (전자신문 그린데일리 기자)

"저탄소사회 구현에 사회적 공감대 조성 필요"

문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



문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그리드 사회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민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실천에 옮기고 있듯이 에너지절약·탄소배출저감 활동에도 자연스러운 호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녹색산업의 발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올해는 스마트그리드 표준 분야에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며 "세계 주요국과의 표준협력을 적극 추진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요건으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아직 세계적으로 관련 요소기술이 확보단계에 있는 만큼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검증을 거쳐 상용화에 부족함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 부회장은 "제주도 실증사업이 끝난 후에는 거점도시와 같은 실증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검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시장 확대는 업계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성공적인 정착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 지열 · 풍력 모두 모아 '자급자족'

70가지 친환경 기술 적용… 지난 겨울 맹추위에도 난방전력 '마이너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꿈의 집'이 에너지 제로하우스 혹은 패시브하우스란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 태양열과 풍력 · 지열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인 경기도 화성시의 '제너하임'도 꿈의 근사치에 접근한 에너지 제로하우스 가운데 하나다.



김승완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최첨단 친환경 에너지 주택인 제너하임. 앞마당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타고 기흥동탄 IC를 빠져나와 경기도 화성시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마주하고 달리다 오른쪽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면 반송동의 나지막한 '타운하우스'들이 눈에 보인다.

이곳 타운하우스 지역에 위치한 대우건설의 '동탄 푸르지오하임' 단지 내 333동에 국내 최초로 숙박 체험이 가능한 에너지 소비 제로(0) 주택 '제너하임(ZENER HEIM)'이 있다. 제너하임은 외부 에너지를 전혀 소비하지 않음을 뜻하는 '제로 에너지(Zero Energy)'와 집을 뜻하는 독일어 '하임(Heim)'의 합성어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대폭 줄인 최첨단 친환경 에너지주택이다.

지난해 8월 말 문을 연 제너하임은 총면적 1백90제곱미터(약 57평) 규모의 2층 건물로,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 옥상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너하임은 실제 주민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주거단지 내 주택에 대우건설에서 개발한 70가지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전시용 주택과는 차별된다.

체험 방문자들 "너무 편리하다" 감탄

둘러보아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딱 일반 가정집인 제너하임은 인터넷 홈페이지(www.zenerheim.co.kr)를 통해 체험신청을 접수한다.

제너하임 주택사업본부 이지연 대리도 "체험을 신청했던 많은 분들이 방문 전에는 뭔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와 보시고는 집이 편안하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신다"고 설명했다.

'최첨단 주택'이라는 소리에 긴장했던 기자도 이 대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체험자들과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부엌으로 발길을 옮기자 싱크대가 눈에 들어왔다. 스위치를 밟는 게 아니라 발을 갖다대기만 해도 물이 나오는 방식이라 고장 걱정이 없다. 스위치 작동에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으로 충당된다.

2층 베란다는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시각적 청량감과 함께 겨울철 실내 온도를 1~2도 정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중으로 인해 집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경량화 공법이 사용됐다.

김승완 기자


에너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실의 대형TV.


에너지도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운동기구.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보안등.

제너하임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에도 난방전력이 거의 들지 않았다. 이 대리가 보여준 에너지 사용실적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된 달이 많았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패시브(Passive) 기술'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tive)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내벽·유리 등 밖으로 새는 열 완전 차단

패시브 기술은 말 그대로 에너지 낭비를 막아 주는 기술로, 옛날 어머니들이 문틈으로 새는 바람을 막기 위해 붙이던 문풍지와 같은 '차단 테이프'의 기능을 한다. 제너하임의 모든 창에는 단열성이 뛰어난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와 태양열을 차단시키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기능도 있는 반사유리가 사용됐다. 로이유리는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금속막(대개 은 사용)을 코팅한 유리다.

건물 내부와 외부에는 각각 용도에 맞게 두 가지 타입의 단열재로 안팎으로 새는 에너지를 막았다. 내벽에는 얇으면서도 단열효과가 높은 에어로젤이 들어갔고, 외벽에는 벽속이 아니라 건물 바깥에 단열재를 두르는 외단열공법으로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효과를 극대화했다. 집안 구석구석 설치된 환기시스템은 필요할 때 필요한 곳만 환기를 하고 그 외에는 차단을 할 수 있어 냉기나 열이 드나드는 것을 최소화한다.

액티브 기술에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과 풍력까지 사용됐다. 정원에 설치된 하이브리드 보안등은 햇빛이 강한 날에는 태양광으로, 바람이 많은 날에는 풍력으로 충전했다가 밤이 되면 불을 밝힌다. 정원 곳곳의 조명등도 한나절 태양광 충전으로 저녁 내내 켜 놓을 수 있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태양열 급탕시스템이 설치돼 이곳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과 온수를 생산한다. 이 대리는 "온수는 섭씨 43도 정도로 생각보다 따뜻하다.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만 보일러를 돌리면 되니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년 내내 섭씨 15도 정도로 유지되는 지열도 이용된다. 1백미터 깊이로 박힌 히트파이프로 지열을 끌어올려 추운 겨울에는 난방에, 더운 여름에는 냉방에 활용한다.

제너하임은 이런 식으로 매월 시간당 6백24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2백30킬로와트를 절감한다. 제너하임과 같은 면적을 가진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평균 시간당 7백킬로와트임을 감안하면 매월 1백54킬로와트의 전력을 남기는 셈이다.

1~2년 내 일반아파트에도 기술 적용 예정

이 대리는 "제너하임에서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와 절감된 에너지를 합하면 종종 에너지 소비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남는 에너지는 향후 푸르지오하임의 단지 공용 전력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제너하임에 적용된 기술 중 효율성이 뛰어나고 상업화가 가능한 12가지 기술을 앞으로 1~2년 내에 자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실제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상상만 해 오던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이렇게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딩동! 에너지 절약 코디가 왔어요

서울 송파 '그린코디' 45명, 집집마다 방문 녹색생활 실천 도와

비데는 소비전력이 얼마나 될까? 단순히 켜두기만 해도 시간당 1.39와트가 빠져나간다. 1년이면 약 1만2천와트다. 생활 속에 모르게 새는 에너지가 많다.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각 가정에 맞는 에너지 절약법을 알려주기 위해 '그린코디'들이 나섰다.

'딩동!'

3월 24일 오전, 서울 잠실동에 사는 이미숙(46)씨 아파트에 녹색조끼를 입은 두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송파구 '그린코디'로 활동하는 이종미(46), 김은란(47)씨다.

송파구는 2009년부터 녹색생활 주민실천 사업의 하나로 '그린코디'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돕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린코디들은 이씨와 간단한 에너지 절약 상담을 한 뒤, 집 안을 둘러봤다. 꺼져 있지만 플러그가 꽂힌 TV에 다가가 대기전력을 직접 측정해 보여줬다. 단순히 플러그만 꽂아놓아도 낭비되는 대기전력이 0.647와트였다. 얼마 안 되는 전력이지만 단순히 계산해도 하루 15.5와트, 1년이면 무려 약 5천7백와트가 낭비된다.

김은란 그린코디가 TV를 켜봤다. 드라마가 나오자 소비전력이 1백28와트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미숙 주부는 생각보다 높은 전력에 깜짝 놀랐다. 김은란 그린코디는 "외출하실 때 쓰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다 뽑아주세요. 얼마 안 되는 대기전력이라도 모이면 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라며 에너지 절약법을 설명했다.

김 코디는 또 "헤어드라이기의 경우 소비전력이 상당하다"며 "될



이경민 기자

서울 잠실동 이미숙씨 집에 녹색조끼를 입은 '그린코디' 두 명이 찾아왔다.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 절약법을 안내하는 '그린코디' 김은란씨가 '대기전력측정기기'를 이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밥솥의 대기전력을 측정해 보고 있다.

수 있으면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방으로 가봤다.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차례로 측정했다. 전기밥솥의 대기전력이 0.69와트로 39인치 TV보다도 높았다. 소비전력을 측정하자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미숙 주부는 "이제 보니 저희 집에 있는 전기밥솥의 에너지등급이 4등급이네요. 작은 밥통의 소비전력이 이렇게 엄청난지 몰랐어요. 평소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전기밥솥에 며칠이고 밥을 넣어뒀는데 이제 전기밥솥의 플러그는 아예 빼버려야겠네요"라고 말했다.

대기전력 측정기기로 일일이 체크

반면, 측정결과 커피포트는 대기전력이 0으로 나왔다. 이처럼 각 가정마다, 쓰는 가전제품에 따라 소비전력이 다르다. TV만 해도 LCD, LED, PDP 등 모니터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 소비전력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각 가정마다 맞춤형의 에너지 소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그린코디가 담당하는 것이다.

송파구청 맑은환경과 백수현 주임은 "그린코디는 같은 주부의 입장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법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며 "상담을 통해 실생활 속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세탁기를 지나치게 자주 돌리는 사람이라면 조금 줄이는 것을 권고하는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코디는 2인 1조로, 상담을 신청한 가구마다 직접 방문해 에너지 절약법을 알려준다.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는다.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총 10회의 교육 중 8회 이상 참여해야 그린코디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린코디들은 전문강사를 통해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녹색생활실천방안 등의 환경교육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그린코디로 활동해 온 이종미 주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린코디로 활동하기 전, 한여름에 전기료가 무려 40만원 이상 나온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린코디로 활동하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다 뽑아두는 것이 좋은 에너지 절약 실천법임을 알게 됐어요. 그 뒤 전자제품은 물론 비데까지 (플러그를) 뽑아뒀어요. 에어컨 사용 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죠. 그랬더니,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더군요."

어느덧 그린코디 활동 3년차인 이종미 주부는 이제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습관이 됐다. 2010년부터 그린코디로 활동해 온 김은란 주부는 특히 '멀티탭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린코디로 활동하며 멀티탭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저희 집의 경우, 모든 전자제품을 전기 차단이 가능한 멀티탭에 꽂아둡니다."



이경민 기자

TV의 대기전력을 측정한 결과 0.647와트가 나왔다. 대기전력은 단순히 플러그만 꽂아 놓아도 소비되는 에너지로, 1년에 약 5천7백와트가 낭비되고 있었다.

이 같은 실천을 통해 김 주부는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노래방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에어컨의 플러그를 뽑기만 했는데도 전기료가 월 3만원이 줄었다.

김 주부는 "몇만 원 아껴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정말 중요하다"며 "조금 불편하겠지만 에너지 절약으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기 차단하는 멀티탭 중요성 실감"

이날 에너지 절약 상담이 끝난 후 이미숙 주부는 "그린코디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다음에는 저도 그린코디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린코디로 활동하려면 1년에 최소 아파트 5가구, 일반주택 3가구를 방문해야 한다. 지난해 20여 명 그린코디가 지역 내 1천3백여 가구를 방문해 진단과 에너지 절감 홍보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45명의 그린코디가 6백여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송파구청 맑은환경과 백수현 주임은 "방문가구 수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한 가구당 방문 수를 늘릴 예정"이라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적용해 전년도 동월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하는 '그린코디 지정관리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부들이 직접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을 상담해주는 '그린코디'. 올해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길 기대해 본다. G

글 · 이제남 기자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양대축으로 육성해 2015년 세계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의 한경풍력발전소.

풍력 ·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키워

정부지원 예산 1조시대 열어… "선제적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태양광 주택' 하면 커다란 태양광 모듈(집광판)을 떠올리는가? 천만에.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겉보기엔 다른 건물과 별다를 게 없는데도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 시스템' 덕분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화석화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 자체를 건자재화한 점이 특징이다. BIPV 시스템을 건물의 외벽재, 지붕재, 창호재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설치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 유럽 등지의 태양광 발전 선진국에서 설치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도로 연구가 시작된 뒤 2004년 무렵부터 기업, 대학 등의 연구가 본격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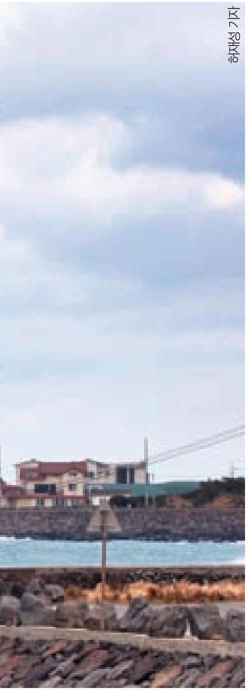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0 신재생에너지대상 산업포장자를 배출한 곳이 초기 BIPV 시스템 연구에 뛰어든 '쏠라테크'다. 쏠라테크의 이길송 연구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2010 신재생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BIPV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연구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쏠라테크는 지난 2000년 7월 LG산전 출신 기술자 4명이 만든 태양광 전문기업. 쏠라테크 연구개발팀의 양연원 연구원은 "쏠라테크의 주력사업은 태양열 모듈 판매와 공공건물의 태양광 설비 사업"이라며 "2006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백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태양광 신기술로 '그린홈 1백만호 사업'

그린홈 사업 이외에도 이명박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업계 신년 인사회에 보고된 한 조사 결과에 따



허재성 기자



조선DB



조선DB

태양광 전문기업 쏠라테크의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시스템이 적용된 빌딩들.

신재생 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 박막태양전지 · 해상풍력 ·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 10대 원천기술 지원 (1.5조원)
- 기어박스 · 블레이드 · 소재 등 8대 부품 · 소재 · 장비 개발 집중지원 (1조원)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테스드 베드' 구축 등 R&D 지원 (3조원)
- 신재생에너지 설치 위한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 추진
-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수출 1억 달러 이상) 50개 육성
-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 조성
- 2015년까지 민 · 관 합동으로 총 40조원 투자
-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세계시장 점유율 15% 목표)
- 2015년에는 태양광 · 풍력을 중심 신재생에너지 수출 362억 달러, 11만명 일자리 창출 예상

르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가 전문조사기관인 '솔라앤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6개 신재생에너지원 2백20여개 제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산업(제조업 기준)은 ▲기업체 수는 2.2배 ▲고용인원은 3.6배 ▲매출액은 6.5배 ▲수출액은 5.9배 ▲민간투자는 5배 증가했다.

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장 등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010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RPS) 도입(2010년 4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발표(2010년 10월)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발표(2010년 11월) 등을 통해 "어느 해보다도 신재생에너지가 관심을 받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해였다"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1조35억원을 지원, 최초로 정부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한다. 이는 2010년(8천84억원) 대비 1천9백50억원, 24.1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이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1조원대 예산은 박막태양전지·해상풍력·차세대 바이오연료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기어박스·블레이드·소재 등 8대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1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란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며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2015년 수출 3백62억 달러, 고용 11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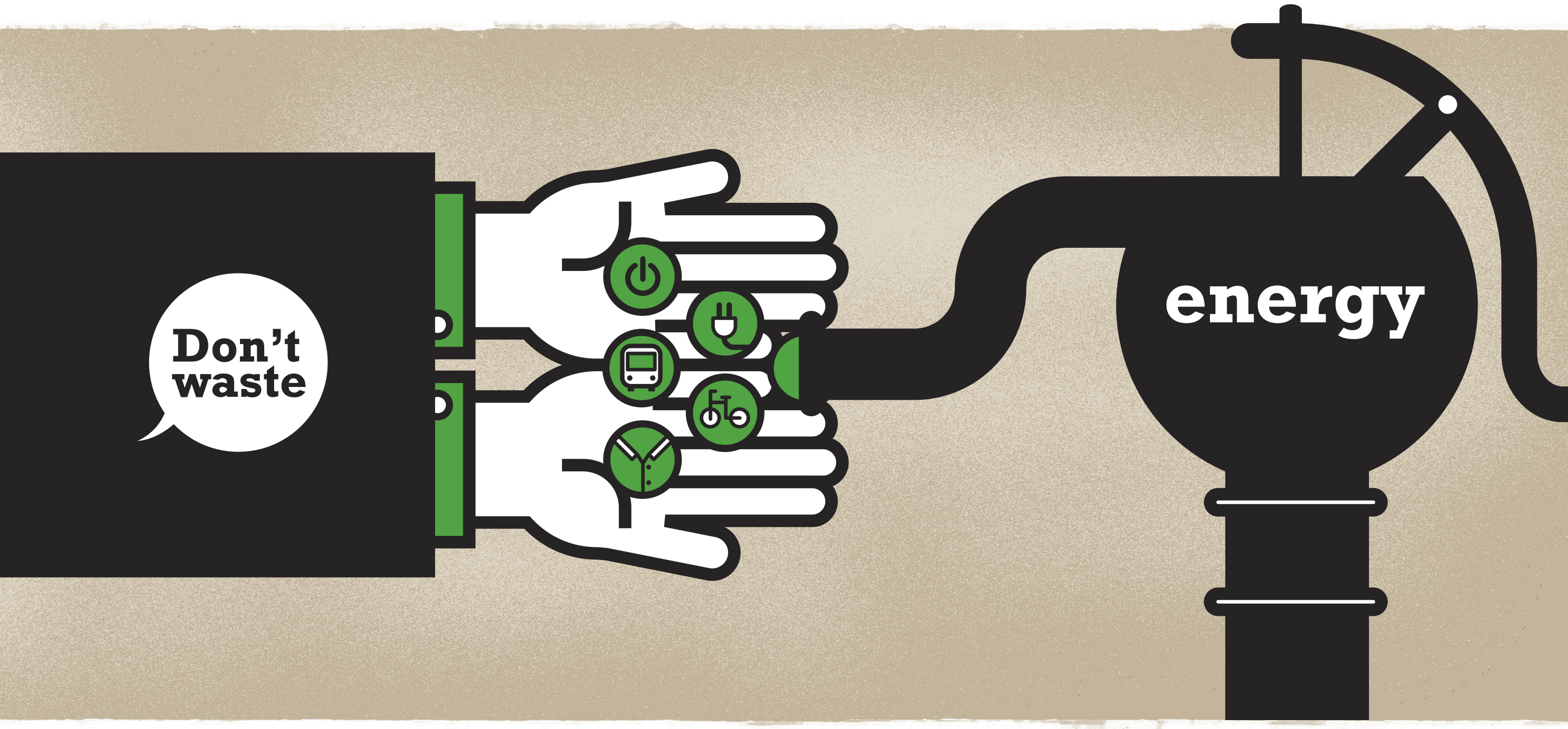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13일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이 목표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조만간 수출 1백억 달러 시대를 열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에 매진해 줄 것"을 관련업계에 당부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1조원대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런 만큼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하며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을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플러그 뽑고, 커튼 달고, 낮엔 창가 조명 끄고…

간단한 실천으로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는 데는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 개선과 이를 통한 참여가 절실하다. 생활 속 간단한 실천만으로 에너지 자주국가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안하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에 대해 알아봤다.

사례 1 주부 나알뜰씨의 '홈 에너지 절약법'

● **구매 노하우** 주부 나알뜰씨는 가전제품 구매 시 디자인에 앞서 에너지효율 등급부터 확인한다.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게 에너지 절약의 첫 걸음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낭비전력을 막아 매년 한 달 전기 사용요금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나알뜰씨의 설명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존 창호 대비 10퍼센트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고기밀성 단열 창호를 설치하고 실시간 전력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말한다.

● **절약 노하우**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TV, 컴퓨터와 모니터의 전원은 차단한다. 컴퓨터의 전원 차단이 어려울 경우 절전상태를 설정해 둔다.

오염이 심하지 않은 세탁물은 가급적 한번에 모아서 세탁하고 다림질도 모아서 한다. 대기시간이 긴 전자레인지와 비데는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차단해 대기전력 낭비를 줄인다. 대기전력차단장치(멀티탭형, 콘센트형)를 활용하는 것도 손쉽게 대기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냉장고는 꽉꽉 채우기보다 60퍼센트 이하로만 채운다. 냉장고 내부를 10퍼센트 채울 때마다 3.6퍼센트의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은 섭씨 영하 15~18도, 냉장실은 섭씨 3~4도로 설정해 놓고 사용한다. 냉장고 온도를 섭씨

일러스트·유재민

1도 올리면 5퍼센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목욕 시엔 욕조를 이용하기보다는 샤워기를 활용해 샤워한다. 절수형 샤워헤드와 수도꼭지를 설치하면 불필요한 물 낭비뿐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커튼, 블라인드, 틈새 문풍지는 겨울철엔 실내 열 손실을 방지하고 여름철엔 햇볕을 차단해 실내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에 에어컨 필터 청소는 월 1~2회 정기적으로 해 성능 향상을 높인다. 고효율 조명기기(1등급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사용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간단하게 램프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백열 램프를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 교체할 경우 대당 45와트, 형광램프를 교체하면 대당 8와트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난방기는 온도조절기를 이용해 난방온도를 낮추거나 주차단밸브를 조절하는 것으로 난방에너지를 절약한다. 난방을 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아 열 손실을 방지한다. 여름엔 섭씨 26도, 겨울엔 섭씨 20도 등 권장 실내온도에 맞춰 생활하는 것도 노하우다.

사례 2 직장인 나공감씨의 '비즈니스 에너지 절약법'

● **구매 노하우** 나공감씨는 사무실에서 데스크톱(PC) 대신 노트북을 사용한다. 데스크톱은 소비전력이 110와트, 노트북은 소비전력이 60와트로 데스크톱보다는 노트북이 절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절약 노하우** 최소 3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회의시간이나 점심때에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것을 잊지 않는다. 평소 '슬립기능'을 10분 이내로 설정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낮에는 창가 조명은 꺼둔다. 조도 센서를 활용해 실내 조도를 조절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여름철엔 에어컨 온도를 높이는 대신 보다 시원한 '노타이' 차림을 하거나 넥타이를 푼다. 겨울철엔 내복이나 조끼·카디건 등을 착용하거나 무릎담요를 활용해 체감온도를 조절한다. 개인 가습기나 개인 난방기 등 개인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는 "승용차요일제에 따라 자가용을 타고 다녔지만 최근 고유가로 인해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기가 겁난다"면서 "번거롭긴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말한다.

3층 이하를 오르내릴 때는 운동 삼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나공감씨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뉴시스

고유가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고유가 대응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례 3 베스트드라이버 나기사씨의 '자동차 에너지 절약법'

● **구매 노하우** 에너지효율 1등급 차량은 5등급 차량보다 약 30~50퍼센트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 유지비용 등 경차가 경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대형차와 비교했을 때 경차는 같은 연료로 2배 이상 운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동변속기 차량이면 자동변속기보다 연비가 20~30퍼센트 우수하다.

● **절약 노하우** 연료 낭비를 부추기는 급가속, 급가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루에 5회 정도 급가속과 급제동만 해도 약 64리터의 연료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운행속도는 공기저항, 엔진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경제적인 속도'라는 60~80킬로미터를 유지한다. 내리막길 등에선 구태여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다.

자동차 창문을 열고 주행하면 공기저항 때문에 배기량 및 속도에 따라 2~5퍼센트 연료가 더 소모된다. 가급적 창문을 닫고 주행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것도 연비에 영향을 준다.

차량 중량을 10킬로그램 줄이면 연비가 약 6퍼센트 증가한다. 운전을 하기 전,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는 길을 '모의주행'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가는 길을 헤매지 않으면 그만큼 주행거리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검 습관은 자동차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은 기본이다. 타이어공기압 감소는 연료 소비 증가로 연결되므로 나씨는 한 달에 한 번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이 기사는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이 추천하는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중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백20만대… '4강 신화' 시동건다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린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그린카 개발과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유가와 환경기준 강화로 고효율 그린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들이 양산 모델을 대거 쏟아내 '글로벌 그린카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카는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가리킨다.

그린카는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효율이 올라가면 이산화탄소(CO_2) 등 배출가스도 줄어든다.

기존 가솔린 엔진의 에너지 효율은 약 2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운데 겨우 25퍼센트만 차를 움직이는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열에너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반면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은 80퍼센트대에 이른다.

한국은 매년 자동차 연료용으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수입 원유 가운데 33퍼센트가 수송용으로 소비됐다. 그린카는 연비가 좋아 연료를 적게 소비한다. 특히 전기차는 전력생산 단계를 제외하면 원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는다. 그린카가 확산되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그린카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그린카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세제 혜택으로 그린카 보급 박차

정부도 지난해 12월 제10차 녹색성장 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그린카 산업 발전 로드맵을 내놓았다. 2015년까지 연간 1백20만 대의 그린카 생산 설비를 확충해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에 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우선 그린카 시장 창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2020년 1백만 대 생산 목표를 이번에 2015년 1백20만 대로 높였다. 이 중 90만 대를 수출하고 30만 대를 국내에 보급해 국내 시장의



조선DB

정부는 그린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그린카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의 전기버스인 '일렉시티'.

그린카 육성전략



21퍼센트를 그린카로 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차, 클린디젤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을 양산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1천억원을 그린카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과거 5년간 투자액(1조3천억원)의 2.4배 규모다.

그린카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카 구입 시에만 지원되던 최대 3백10만원의 세제 혜택을 2012년부터 전기차 등 다른 그린카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전기차에 대해선 2012년까지 2천만원 한도에서 가솔린 차량과의 가격차를 50% 보전한다.

현재 각국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그린카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은 내연기관의 효율성 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연비가 좋고 유해 배출가스가 적은 클린디젤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에서 앞서가는 일본은 이 기술이 향후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의 상용화로 연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디젤기술은 유럽에 밀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은 일본에 뒤진다고 판단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국은 고연비 소형차와 가솔린엔진, 클린디젤 기술에 경쟁력이 있으며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등에서도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전기차 모터와 하이브리드차 멀티변속기 시스템 등 그린카 8대 주요 부품을 1백퍼센트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그린카의 종류

전기자동차 (EV)	모터와 전기로만 구동.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차. 운행거리가 150km내외로 충전인프라 구축 및 배터리 성능향상이 과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PHEV)	단거리에서는 전기로만 운행하다가 장거리는 엔진을 구동. 배터리 충전을 하므로 충전인프라가 필요.
하이브리드차 (HEV)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 내연기관과 모터를 적절히 작동시켜 연비 향상.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인프라는 불필요.
연료전지차 (FCEV)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모터를 구동.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며, 고가인 부품가격 인하 필요.
클린디젤차 (CDV)	유로-5기준 이상을 만족하고 CO2 규제에 대응가능한 초고효율 디젤차. 디젤로 주유하므로 충전인프라 불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HEV와 유사

정부가 야심 찬 그린카 육성 전략을 내놓은 데는 배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의 2차 전지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값의 30~4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LG화학과 SB리모티브, SK에너지 등 국내 3개 사가 이미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자동차기업들 본격적인 시장 공략

LG화학은 현대차와 기아차, CT&T 등 국내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GM과 포드, 프랑스 르노, 스웨덴 볼보, 중국 창안자동차 등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로만 2011년 3천억원, 2015년 3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SDI와 독일 보쉬의 합작사인 SB리모티브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등 유럽 업체를 중심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SK에너지 역시 현대차, 기아차와 전기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09년 LPG를 기반으로 한 아반떼와 포르테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상반기에 미국에서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제품을 우선 선보이고, 하반기 이 모델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현대차는 내년에 자사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을 추가한다. 2013년 이후에는 전기 코드로 충전한 뒤 휘발유 엔진으로 보조동력을 얻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GM은 GM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시보레 볼트를 연내 들여와 시범 운영하면서 시장 반응을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차 인프라가 깔리면 언제든 시판에 나서기 위한 사전 준비다. 르노삼성도 2011년 말부터 SM3 전기차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G

글 · 장승규 (한경비즈니스 기자)

개항 10년 맞은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

"바꾸고 또 바꿨더니 세계 최고가 되더라"

인천공항이 3월 29일 개항 10주년을 맞았다. 우려 속에 개항해 '6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성공적인 국책 사업의 하나로 평가받는 인천공항은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DB



이채욱 사장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올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부기관, 항공사, 협력사, 조업사 등 5백70개 상주 기관과 업체, 3만5천여 명의 종사자가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해 왔기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항 10주년을 맞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이채욱 사장의 소감이다. 이채욱 사장의 말대로 인천공항은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인천공항은 구상 단계부터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영종도와 용유도, 그 사이 삼목도 바다를 메우고 만든다는 계획은 환경과 생태계 문제뿐 아니라 지반 자체가 약해 비행기 이착륙 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부터 낳았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매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6년 연속 1위

개항 당시 47개 항공사, 세계 1백9개의 도시를 연결하던 인천공항은 10년이 지난 지금 67개 항공사, 세계 1백72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공항 이용객 수는 연 3천3백만명으로 2010년 일본 나리타공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섰다.

국제 화물운송량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7년 연속 1천7백억원대 흑자경영도 실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2010년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ASQ)에선 1백41개 공항 중 1위로 뽑히며 '6년 연속 1위'라는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6년 연속 1위 유지 비결에 대해 이 사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공항이라는 평가 외에 빠른 공항 출입국 수속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꼽았다. 특히 첨단IT,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유비쿼터스 공항을 구현하는 인천공항의 출입국 소요시간은 각각 16분, 12분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60분·45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출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승객 사전예고제'와 자동여권 판독기를 통한 '무인 자동검색시스템'의 활용 덕이다. '셀프 체크인' 단말기를 사용하면 줄을 서지 않고도 3분이면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 사장은 "쇼핑시설 및 환승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도 인천공항만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인천공항 내엔 전통문화체험관, 한국문화박물관 등을 꾸며 공항 이용객들이 언제든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전통문화 행사 진행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는 '왕가의 산책'이나 '한국의 가면극' '6·25 한국전쟁 사진전' 등을 기획, 진행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마련한 이벤트만 4백 회 정도 된다.

이를 위해 국립극장, 국악원 등과도 협력했다. 두바이 공항이나 싱가포르 공항은 시설과 규모에서 뒤지지 않지만, 수준급 전통문화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명품 '루이뷔통'이 작년 12월,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을 확정했다.

그간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의 '러브콜'을 거부해 오던 루이뷔통 매장의 인천공항 입점 확정은 인천공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채욱 사장은 "이렇게 향상된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공항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는 유럽의 양대 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그룹과 파리공항관리회사의 CEO가 인천공항에 협력관계 구축을 제의하고자 방문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은 올해 사우디 제다공항 IT사업관리 컨설팅,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국제공항 운영컨설팅과 교육훈련,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 필리핀 팔라완공항 확장사업 컨설팅, 필리핀 마닐라공항 제3터미널 운영사업 등에 나선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국제공항, 페루 쿠스코공항 건설에도 참여한다.

"해외사업 진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공항 주변 개발 사업을 가속화해 세계적인 공항 운영사로 성장하겠다"는 것이 이 사장의 다짐이다.

사내 인재교육원, 세계 최초로 ICAO인증 받아

이 사장은 "이를 위해 4조3백86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 이후 세계적인 공항운영사로 성장하는 중장기 경영전략(Global IIAC 2015)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이 지난 3월 9일 세계 최초로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전문 국제 교육기관(ICAO Trainair PLUS Member)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ICAO의 Trainair PLUS 인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전 세계 항공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향후 글로벌 항공교육 수요 유치 확대는 물론, 항공교육 강국으로의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연합

7년 연속 1천7백억원대 흑자경영 성과를 낸 인천공항은 '세계 최우수 공항상'을 6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신인 아마복싱 우승한 배우 이시영

강펀치 여인?… 그래도 "나는 연기자다"

최근 아마추어 복싱대회 우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이시영. 일약 스타가 된 그에게도 수많은 실패와 도전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복싱처럼, 세상을 향해 시원하게 펀치를 날린 이시영은 요즘 최고의 '핫스타'로 떠올랐다.



조선DB

배우 이시영이 복싱 챔피언에 오르는 이변이 벌어졌다. 복싱 관계자들은 "팔다리가 긴 신체조건이 복싱하기에 상당히 좋고 근성이 있다"며 "타고난 복싱선수"라고 호평했다.

배우라고 불러야 할까, 복서라고 불러야 할까. 그의 직업은 배우다. 하지만 복서로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그의 이름은 이시영이다. 화제의 복서 겸 연기자 이시영(29)을 지난 21일 서울 인사동에서 만났다.

지난 17일 폐막한 제7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깜짝 우승을 차지, 그는 현재 가장 '핫'한 여배우로 떠올랐다. 3월 31일 자신의 첫 주연작 〈위험한 상견례〉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2008년 데뷔 후 가장 따뜻한 봄날을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봄을 맞기까지는 살을 에이는 엄혹한 추위도 견뎌야 했다.

작년 여자 복싱선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막극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복싱과 인연을 맺은 그는 '연습벌레'라는 세간의 평과는 달리 복싱 연습을 너무나 싫어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3일을 연습해야 했어요.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핑계를 대면서 연습에 안 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드라마는 찍어야 했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아이였나', '이렇게 의지가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진도가 나가다 보니 운동을 계속하게 됐죠."

부산서 영화촬영 중에도 틈틈이 대회 준비

복싱에 재미를 붙인 이시영은 지난해 11월 사회인 복싱대회인 KBI 전국 생활체육 복싱대회 48킬로그램급에 출전해 우승했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아마복싱대회인 제47회 신인 아마추어 복싱전에서도 우승컵을 안았다.

영화 〈위험한 상견례〉를 찍을 때는 촬영지인 부산에 가서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에 매진했다. 상대 배역인 송새벽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새벽 오빠도 몰랐죠. 제 사적인 일이잖아요. 제 본업은 배우니까, 제가 복싱을 한다는 걸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특별히 복싱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연합



연합

이시영은 '여배우는 얼굴이 생명'이라는 통념을 깨고 거친 복서의 세계에 도전했다. 네티즌들은 복싱을 하는 이시영의 민낯을 보며 진정 아름답다고 호평했다.

여배우는 얼굴이 생명이라는 통념을 깨고 미모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친 복서의 세계에 도전한 이유를 묻자, "복싱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연습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자, "체중 조절"이라고 했다. 그는 "먹으면 심하게 찌는 체질이라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복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머뭇거리고 주춤거렸다. 쑥스러운 표정도 숨기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럽다"는 심경도 토로했다.

"사실, 복싱대회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나갔는데…. (너무 주목을 받아) 사실 너무나 놀랐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과한 칭찬을 받은 것 같아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요. 제가 잘한다는 건 연습했던 기간에 비춰 잘한다는 거지, 제 절대적인 수준은 결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부풀려져 부담스럽습니다."

복싱으로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연기자로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시영은 26세 때인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신드롬〉에 출연하면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다.

어렸을 적부터 연예인이 꿈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컸다. "정 연예인이 되려면 대학 졸업장을 받고 나서 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시영은 묵묵히 졸업을 기다렸다. 전공인 의상디자인(동덕여대)이 적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어렸을 적부터 꾸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졸업 후 기다렸다는 듯 5년여간 줄기차게 오디션에 도전했다. 기획사는 수십 번, 광고나 에이전시 오디션은 수백 번을 봤다. 그리고 붙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낙방은 일상이 됐다. 기대하는 마음은 자꾸만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꿈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배우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은 그를 더욱 강하고 단단한 여성으로 담금질했다.

"오디션을 보면서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다'에서부터 '결혼이나 해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넌 안 될 거야'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오히려 이 일이 더욱 하고 싶어졌어요."

오랜 도전 끝에 결국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에 출연하게 된 그녀는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통해 주목을 끌었다. 주인공 잔디(구혜선)를 질투해 위험에 빠뜨리는 악역이다. 안티팬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너무 하고 싶은 역할이었어요. 팬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걸 생각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안티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연기합니다."

복싱으로 과한 칭찬받아 쑥스러워

그녀의 연기 경력은 데뷔 3년차로, 많지 않다. 드라마와 영화 출연 몇 편이 고작이다. 단역부터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오지 못했다. 이시영은 그런 점이 "불안하다"고 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경력을 많이 쌓았으면 연기 생활하기가 수월한데, 이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큰 역할을 맡다 보면 연기 논란도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연기를 한 경력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싱과 연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시영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송새벽과 함께 '사랑의 포장마차' 행사에 참가한 것. 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 이시영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며 봉사활동에 매진, 눈길을 끌었다.

챔피언답지 않게 "소심하고 겁도 많으며", 연기를 위해서라면 "안티팬도 두렵지 않다"는 이시영. 그는 좀 더 진지한 연기자, 더 나아가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고 싶었어요. 화려한 모습이 좋았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G

글 · 송광호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지역 위해 '한우물'… "박수를 보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 최종 28인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3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신공직자상 수립을 위해 기획된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에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 총 3백31명이 뽑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위클리공감〉에서는 공직 사회 새로운 롤모델로 떠오르는 '지방 행정의 달인' 최종 28인의 활약상을 연재한다. 첫번째 주인공은 시설환경 분야 3인이다.

대통령 표창받은 '가축분뇨 처리의 달인' 황인수씨

"연구를 위한 연구나 논문을 위한 논문은 많은데 실제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고 그 것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지식을 공유한 것뿐입니다. 이번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의 의미라 더욱 책임감이 큽니다."



한준호 기자

'가축분뇨 연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황인수씨. 실무와 이론의 조화가 가장 이상적인 연구라고 말한다.

'최고의 달인'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북 상주시 축산환경연구소 황인수씨의 수상 소감이다. 황인수씨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분야의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SCI급(과학논문 인용 색인) 학술지에 가축분뇨 처리 관련 논문 3편과 세계학술대회에서 7편의 연구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였다. 공무원으로서는 보기 드문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상주고, 경북대 미생물학과를 거쳐 경북대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 과정을 마친 그는 1997년에 환경직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가축분뇨 처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2000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정부 시범사업으로 38억원을 들여 건립됐으나 5년째 가동이 중단됐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같은 해 '부분 질산화 제거공정과 혐기성 암모니아 산화 공정'을 돼지분뇨에 적용해 성공했다.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물로 국내 가축분뇨 처리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

그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 처리와 자원화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 절감 사례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감사원 감사 결과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논문도 꾸준히 발표하며 환경부 및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가 정책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연구 성과와 관련해 2001년에 정부가 선정하는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황씨는 "앞으로 상주 시민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4년간 한길 '해수담수화의 달인' 김우찬씨


서울신문

"다들 안 해서 시작했고, 하다 보니 오기가 생겼고, 그 다음은 즐기게 됐습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김우찬씨는 달인 선정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14년간 오직 '해수담수화'에만 매달린 이 분야 선구자이자 개척자나 다름없다.

"국내 처음 개척하는 분야다 보니 관련 연구 자료나 시설이 전혀 없어서 초창기 고생이 심했다"는 그는 "정면 돌파하자고 마음을 먹은 후부터는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김씨는 1997년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고향 제주의 우도 해수담화시설 공사에 관여하면서 제주도 측의 제안으로 공직과 인연을 맺게 됐다. 말단 기술직으로 그때 처음 맡은 '제주 우도의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의 완공과 운영 관리' 업무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시설공사와 운영 관리를 맡으면서 국내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에 한계를 느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혼자 밤을 새워가며 해수담수화 관련 외국논문 등을 찾아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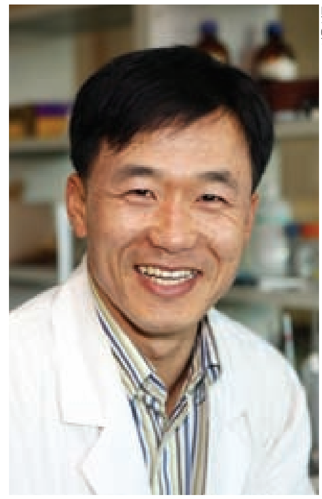
그러다 프랑스 물 산업 전문기업에서 시공한 현장 사진에서 해법을 찾아내 우도 담수화시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추자도 해수담수화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추자 2차 및 우도 2, 3차 증설공사 실시설계를 외부 전문기관에 주지 않고 직접 맡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해수담수화 기자재 국산화를 유도해 10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해수담수화시설 관련 핵심 자재의 국산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연구 도중 인적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그는 비영리단체인 '막여과 해수담수화 연구센터'를 직접 설립하고 알오플랜트라는 웹사이트(www.roplant.or.kr)를 구축해 기술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무원이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우리나라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관리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하수처리기술 수출 주역 '하수처리의 달인' 이광희씨


서울신문

어쩐지 냄새가 심할 것 같은 '하수'를 고가의 장비 없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2급수의 깨끗한 물로 바꾸는 기술도 한 공무원의 열정에서 탄생했다.

경북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 이광희씨는 "민원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게 됐다"고 말한다.

그의 신기술 개발은 1995년 11월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0년 하수 고도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가 2005년 개발한 '하수 고도 처리 기술 공법(EESA공법)'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하수처리 공법 중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한다.

하수에 포함된 수질 오염원인(유기물, 질소, 인)을 90퍼센트 이상 제거가 가능한 최첨단 공법이다. 특히 고가의 장비 없이 가능한 공법이라 지금까지 특허 5건(국내 4건, 국제 1건)과 2007년 환경부로부터 신기술검증(제107호)과 신기술인증(제222호)을 각각 취득했다.

그가 개발한 신기술은 중동 아부다비와 이라크 등지로 수출 상담도 벌이고 있다. "앞으로 4대강 정화 및 하수 재이용 사업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자신의 이론과 실무,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예산 절감 등에도 힘썼다. 2008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에너지 절감 사업 공모에서 하수처리장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고효율포기기 개선 사업을 제안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환경부장관상, 녹색공무원상, 기술혁신상 등을 수상했다. 이씨는 "항상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성실한 당신들이 인천공항을 빛냈다”

환경미화원 · 주차관리요원 등 개항 10년 맞아 정부 훈 · 포장 받아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세계공항서비스 6연패 달성에 기여한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요원 등 12명에게 포상한다. 현장 근무자 중심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 이례적인 수상이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도 얼떨떨한 이들에게 수상소감을 미리 들어봤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화장실 청결도 1위에 기여한 노귀남 환경미화원이 동탑산업훈장을, 여객터미널청결도 1위에 기여한 엄애자 환경미화원이 대통령 표창을, 고객감동 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한 윤경식 주차관리요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사진 왼쪽부터 노귀남, 엄애자, 윤경식씨

동탑산업훈장 환경미화원 노귀남씨

“과분한 상 받으니 너무 기쁘고 보람됩니다”

“제가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직 믿기지 않지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 노귀남(62)씨는 아직도 얼떨떨하다며 운을 뗐다. 노씨는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총 5등급으로 나뉘는데 동탑산업훈장은 3등급에 해당된다. 노씨는 처음 수상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라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한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면서 삶의 보람을 느꼈지만 이처럼 과분한 상까지 받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됩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인천공항 관계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포상대상자들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출입국심사담당 등 현장 근무자들이 주를 이룬다. 이례적인 수상자 선정이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명인사나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적이 있으면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훈장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포상대상자 선정 경위를 밝혔다.

노씨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왔다. 인천공항 교통센터의 야간 왁스조원으로 바닥 왁스칠,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이물질 제거, 화장실과 복도 청소 등을 담당해 왔다.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샘 근무가 이어지지만 노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 느낀 적이 없다"며 "전 세계 손님들이 찾는 공항을 깨끗하게 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씨는 성실한 업무 태도로, 올해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항목 중 '화장실 청결도' 부문 1위 달성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노씨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당황하던 고객에게 차비를 건네주는 일도 있었고, 지난해 12월에는 고객이 주차장에 두고 간 현금이 든 가방을 주워 돌려주기도 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노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유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 항상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행동으로 인천공항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씨는 이 같은 선행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제가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조차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인데 이렇게 상을 주시니 오히려 부끄럽네요."

대통령 표창 환경미화원 엄애자씨

동료들이 뽑은 '청소왕'에 여러 번 선정

대통령 표창을 받는 엄애자(54)씨도 환경미화원이다. 엄씨 역시 10년간 인천공항에서 일해 온 베테랑이다. 매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여객터미널 청소를 담당한다.

인천공항에 있는 화장실은 약 3백 개로 5백여 명이 3교대로 청소를 하고 있다. 야간근무라 힘에 부칠 만도 하지만 엄씨는 매일 오후 8시면 공항에 일찍 도착해 일할 준비를 한다.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에 거리낌도 있었지만 주부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활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저에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이처럼 엄씨는 늘 즐겁게 일하는 자세로 동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그동안 동료들이 뽑은 '청소왕'으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했다. 엄씨는 청소 실력도 뛰어나지만 마음도 따뜻하다. 새로 들어온 동료들을 살뜰히 살피는 것도 늘 엄씨의 몫이다.

"청소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힘들 수도 있으니, 제가 자발적으로 청소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엄씨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료들 생각뿐이었다. 엄씨는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며 "저보다 더 고생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제가 받게 돼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같이 현장에서 애쓰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천공항의 청결도는 세계 최고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방문한 중국 공항 관계자의 경우,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살펴보고는 "지은 지 10년 된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감탄을 하고 돌아갔을 정도다.

국무총리 표창 주차관리요원 윤경식씨

고객 일을 내 일처럼 '도로의 수호천사'

이와 함께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로 선정되기까지에는 현장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윤경식(57)씨는 여객터미널 주차관리요원으로 7년간 묵묵히 근무해 온 숨은 공신이다. 주차관리직의 경우, 24시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2교대로 근무한다. 윤씨는 주4일을 '주주야야'로 근무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교통영업팀 송정경 대리는 "영종도는 비나 폭설이 잦은데 도로에 서서 주차안내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만 윤경식 사원은 '도로의 수호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고객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고 말했다.

한번은 추운 겨울날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아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1시간 이상 같이 차를 찾아줬다고 한다. 비행기 탑승 시각이 촉박하게 남은 고객에게 주차장에서 분실한 여권을 찾아다가 돌려준 경우도 있다.

7년간 쌓인 그의 선행은 셀 수 없이 많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고객소리게시판 칭찬란'에는 윤씨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고객 글이 단골로 올라온다고 한다.

윤씨는 수상소감을 "영광이죠"라고 짧게 전하며, "고객 분들이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추운 겨울날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배터리가 방전돼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30분간 밀어주었던 경험을 꼽았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신수정 환경관리담당(철탑산업훈장), 이병노 세관통관요원과 임홍헌 출입국심사담당(이상 근정포장), 자원봉사자 김문회씨(대통령 표창) 등도 함께 정부 포상자로 선정됐다. G

글 · 이제남 기자


조선DB

"매년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가 '중국통'을 꿈꾸며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 유학 오지만, 결과는 '베이징통'도 아닌 '왕징(望京·한국인 밀집지역)통'만 돼서 돌아갑니다.

중국 신문도 제대로 못 읽는데, 인근 맛집과 관광지 몇 개 아는 정도로 그들을 미래의 '중국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재중 한인 연합동아리를 만든 첫째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중국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생 김용환씨는 '베이징 마당발'이다. 베이징 외환은행 경제 강연회, 칭화대 한국유학생회 교양강좌,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 유학생강연회 등 짧은 유학 기간에 많은 강연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했다.

중국 일간지 기사 요약·번역한 웹진 제작

〈주중 중국경제신문사〉, 한인잡지 〈좋은아침〉, 〈Aving news〉 등 중국 현지 잡지사와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중국인들과의 인맥을 넓혔다.

김씨가 만든 PnF(Pioneer and Frontier)는 매일 중국 10대 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요약·번역한 웹진을 제작해 한국의 정계·재계·학계 인사 2백여 명에게 발송한다. 2009년 9월 출범해 매년 회원 모집 때마다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원생과 직장인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지원했고, 북한 대학생도 가입 문의를 했다고 한다.

김씨가 중국 기사 요약 웹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국 신문을 한 줄도 안 읽는 유학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다. 중국에 와서까지 한국 포털에 뜬 연예뉴스만 읽는 친구들을 보며 '억지로라도 함께 모여 공부해 보자'며 동아리를 만들었다.

고위 관료, 기업가, 정치인 등 일명 'VIP'들이 본다는 헤드라인 보고서를 입수해 비슷한 형식으로 중국발(發) 기사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PnF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백14개의 웹진을 펴냈다.

"고생해서 중국에 유학 왔는데, 이러다간 나태해지겠다 싶어 무작

在中 한인 유학생 동아리 만든 베이징대 김용환씨

"親韓 중국 리더십 만드는 게 꿈"

재중(在中) 한인 유학생 연합 동아리 'PnF(Pioneer and Frontier)'를 창립한 베이징대 유학생 김용환씨는 매일 중국 10대 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요약·번역한 웹진을 만들어 한국의 정·재·학계 인사들에게 보낸다. 그는 중국인민정부, 주중한국대사관 등 기관과 함께 포럼과 강연회를 기획하는 등 양국 문화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2010년 4월 베이징 현지 컨설팅회사와 PnF가 공동 기획한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PnF회원들(왼쪽사진). PnF 회원들은 매주 언론에 보도된 이슈를 정리해 웹진으로 만든다.

정 혼자 동아리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에겐 한국 유학생과 국가 이미지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고, 한국인에겐 중국의 진정한 실체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웹진을 통해 가장 큰 도움을 얻은 사람은 기사를 받은 분들이 아니라 직접 번역하고 공부한 저희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일명 '강남 8학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김씨의 학창시절 꿈은 '명문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하지만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국내대학 수학과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마당발' 덕에 한국인 최초로 중국 예술의 전당 인턴에 발탁

진로를 고민하던 그에게 '호지자 불여락지자(好之者 不如樂之者·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란 논어의 말은 큰 전환점이 됐다. 대학 자퇴 후 김씨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자본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학문인 커뮤니케이션을 배워보겠다"며 중국 유학을 결정했다.

유학 준비 중 아버지를 심장마비로 여읜 김씨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려면 스스로 실력을 쌓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학업에 열중했고, 결국 베이징시가 지원하는 우수유학생 장학금을 받아냈다.

"큰 꿈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저 자신이 중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나 저나 한국 돈 20만원쯤 가져가면 대충 잘산다며 20킬로그램짜리 여행가방 하나 들고 출국했죠. 중국 물가가 싸서 다 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무식했죠. 베이징과 상하이 물가는 서울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유학 준비를 제대로 못 한데다 베이징엔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살 곳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열심히 공부한 중국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 더 공부했고, 대사관과 현지 기업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을 만나 교류하게 됐고, 그들이 여는 행사에 참여해 진행을 도왔습니다. 학생으로선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뵙고 조언을 들으며 제가 중국에서 뭘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김씨는 최근 한국의 예술의전당 격인 중국 국가대극원의 인턴이 됐다. 한국인으로선 최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와 국가대극원 원장과의 면담에 통역으로 참여한 게 첫 인연이었다.

1년 동안 관계자들에게 꾸준히 안부를 전하며 관계를 맺어온 결과 오페라 〈투란도트〉 관련 인턴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었다.

"문화원 관계자분이 간단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사에 참석했죠. 공식 면담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국가대극원 측 분들이 영어를 못 하는 겁니다. 얼떨결에 제가 중국어 통역을 맡았어요. 워낙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어학실력보다는 거의 눈치로 한 통역이 그래도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 후로 1년간 계속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했더니, 그 '콧대 높은' 국가대극원도 문을 열어주더군요."

김씨의 꿈은 '진정한 중국전문가'다. 일명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정치현상과 문화를 심층 연구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한다.

"베이징대나 칭화대는 미래 중국 리더십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유학생의 참모습이겠죠. 이들을 친한(親韓) 리더십으로 만들어 미래 한중 관계에 기여하는 민간외교관이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G

글 · 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김승완 기자

등산이 '오르기'의 수직적 개념에서 '걷기'의 수평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등산문화와 트레킹 조성이 시급해졌다.

"좀 더 편하게 숲길 걸으세요"

산림청 '숲길정책팀' 꾸려져… 화장실 문제 등 해결사 역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돼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에 새로운 조직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걷기문화를 지원하고 나선 '숲길정책팀'이 바로 그곳이다.

"등산하다 쓰레기를 주우면 버릴 곳이 없어서 결국 주운 쓰레기를 다시 버리고 오게 돼요. 휴지통 설치하는 게 환경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산할 때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주워 올 수 있는 재활용 봉투라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42·인천시 계양구 이수영씨)

"코스별로 트레킹 가능 연령이나 수준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트레킹을 하다 보면 전문 산악인들이나 다닐 수 있는 코스가 나와 위험천만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38·경기도 분당구 이승현)

"북한산둘레길은 코스에 비해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불편해요. 둘레길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만이라도 안내 표지판에 함께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6·서울 중랑구 김용운씨)

산은 언제나 좋지만, 기분 좋게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다 보면 이따금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들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좋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수평 개념의 산길 정비로 등산문화 높여

개정된 법률안은 산림이 기존 '자연자원'에서 '건전한 여가활동, 체험 및 휴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문화 및 휴양을 위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숲길의 종류도 단순 '숲'이 아닌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분류해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와 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산림이용국 내 새로 꾸려진 숲길정책팀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동안의 등산문화는 수직적 개념이 강했어요. 산은 '오르는' 쪽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등산은 트레킹 위주의 수평적 개념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둘레길 걷기'가 유행하는 것도 등산이 수직적 개념에서 수평적 개념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산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트레킹 길을 조성, 운영 및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산림청 숲길정책과 이상인 사무관은 숲길정책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등산·트레킹, 의료비 절감효과 커

휴양등산과에서 분리된 숲길정책팀은 등산·트레킹과 레저스포츠 등의 수요에 부응하여 등산로 정비와 트레킹길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하는 정책개발이 주요 임무다. 나아가 산림생태와 숲길 주변 경관 가치를 재발견해 널리 알리고 국민건강 및 지역사회의 문화·경제적인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국정과제로 '2012년까지 트레킹길 1천킬로미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등산과 트레킹을 통한 건강증진과 그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한 계획이다.

2009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국 주요 산을 표본으로 1천99명의 등산객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등산참여 수준별(횟수)로 산출한 등산활동의 의료비 대체효과는 약 2조8천억원이며 월 1회 이상 등산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약 2조8천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지리산둘레길의 경우 숲길 이용자가 5만명 방문 시 인근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26억5천3백만원, 소득 4억8천만원, 부가가치 파급 12억6천9백만원으로 약 44억원이 기대되며 고용효과도 5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숲길정책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리산둘레길은 2008년 7월 개통한 이래 2010년까지 약 40만명이 방문했다. 주말과 추석연휴에는 하루 2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유명산에 대한 쏠림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숲길 개통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구 펀치볼둘레길(연장 24킬로미터), 한라산둘레길(연장 5킬로미터),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연장 5킬로미터) 및 경북 낙동정맥 트레일(산줄기나 자락에 조성하는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은 트레킹길 1백1킬로미터), 강릉 녹색시범도시 내 숲길(40킬로미터), 지리산둘레길(연장 46킬로미터), 울릉도 둘레길(연장 25킬로미터) 등 총 3백40여 킬로미터를 연장 조성·개통한다. 2016년까지는 약 4천8백50킬로미터 크레킹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산림청

산림청 숲길정책팀 사람들. 수평적 개념의 등산로를 조성하고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숲길정책팀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 내의 숲길과 도시의 숲길을 연결해 문화·역사·삶을 아우르는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바른 등산문화 위한 교육·캠페인 전개

"이를 위해선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보다 나은 걷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트레킹 코스 정비 및 조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아울러 숲길정책팀은 "등산인구에 비해 등산문화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등산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훼손된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산악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운동도 숲길정책팀이 주도적으로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2007년 5천96명에서 2009년 7천1백5건에 달한다.

숲길정책팀은 "올바른 등산요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산행하다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악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등산문화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가을에 누가 야구할까… 3강 3중 2약!

전문가 “SK · 두산 · KIA 강세” 예상에 삼성 · 롯데 · LG “두고 보라”

오는 4월 2일 ‘2011 프로야구’가 겨우내 잠을 깨고 기지개를 켠다. 올해 프로야구 판도를 놓고 야구전문가들은 일단 지난해 4강 SK, 삼성, 두산, 롯데가 올해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진단하고 전력이 세진 KIA와 LG도 가세해 6강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팀으로는 SK, 두산, KIA를 거론하고 있다.



롯데 이대호



한화 류현진



KIA 윤석민

최강 SK는 해결사 김재현의 은퇴, 주전포수 박경완의 무릎 수술 후유증, 주전 유격수 나주환의 입대 등으로 인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감독들은 올해도 SK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다. 김성근 감독 부임 이후 4년 동안 한국시리즈에 모두 진출해 세 번 우승을 했다. 주전과 비주전이 따로 없는 선수층이 막강하고 벌떼 투수진도 건재하다.

때문에 SK의 독주를 견제할 팀들이 주목받고 있다. 야구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두산과 KIA를 꼽고 있다. 두산은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받은 선발진 보강에 성공했다. 현역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 더스틴 니퍼트와 일본에서 복귀한 좌완 이혜천이 선발진에 가세했다. 수비와 공격, 중간 계투진이 워낙 탄탄해 선발진의 힘에 사활을 걸고 있다.

KIA는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두터운 마운드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범호의 입단과 김상현의 부상회복으로 타선의 힘이 강해져 우승에 재도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 SK를 제압한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4번 타자 최희섭의 허리부상, 주전 2루수 안치홍의 수술, 두텁지 못한 야수층이 약점이지만 김성근 감독이 가장 경계하는 팀이다.

삼성은 류중일 신임감독이 표방한 공격야구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단 타선의 세대교체에 성공했는데 외국인 타자 라이언 가코가 타선에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가도쿠라의 건재 여부와 오승환의 부활 등 마운드의 변수도



일러스트·이동희

있다.

롯데의 힘도 보다 강해졌다. 이대호를 필두로 최강의 타선을 구축했고 외국인 코리의 영입으로 6선발진을 고려할 정도로 선발진이 두터워졌다. 그러나 소방수를 포함한 중간 투수진과 포지션 변경으로 생긴 수비력의 틈이 변수로 지적받고 있다.

LG는 레다메스 리즈와 벤저민 주키치 등 외국인 투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래알 같았던 선수단에 집단의식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희망을 낳고 있다. 9년 만에 4강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중간투수진, 소방수, 수비력 등을 보강해야 한다.

넥센과 한화는 올해도 부진을 면키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화는 작년 전력에서 크게 보강된 측면이 없다. 거물 루키 좌완 유창식의 활약도가 불투명하고 마운드와 타선이 두텁지 못한 점도 여전한 약점이다. 넥센은 젊은 투수들의 패기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경험이 부족하고 중심타선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

글·이선호 (OSEN 야구부장)

2011 프로야구 무엇이 달라지나

- 승률계산 방식 변경. 작년 사실상 패배로 분류된 무승부를 승률계산에서 제외.
- 베이스볼 코치 보호 위해 헬멧 착용 의무화.
- 5회 종료 후 4분 클리닝 타임 실시.
- 포스트시즌 연장전 기존 12회에서 15회로 확대.
- 종전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3일 전, 한국시리즈는 5일 전이던 엔트리 제출일을 모두 경기개시 1일 전으로 축소.
- 퓨쳐스리그(2군)는 오후 1시에 경기를 열고 야간경기와 중계방송이 있는 월요일 경기도 확대.

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

1 초보 감독들의 운항능력 삼성과 롯데의 변수 가운데 하나는 나란히 초보사령탑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롯데는 제리 로이스터 감독을 경질하고 두산 수석코치 출신의 양승호 감독을 선택했다. 삼성은 선동렬 감독의 옷을 벗기고 류중일 감독을 선임했다.
멀쩡하던 감독들을 교체한 만큼 두 팀 성적에 대한 관심이 크다. 양 감독은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선수단을 장악했다. 훈련량도 크게 늘렸고 주장 홍성흔을 내세워 우승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면서 일사불란한 집단의식을 키워냈다. 류 감독 역시 프랜차이즈 스타출신으로 선수들과 교감을 잘한다. 예전 삼성 특유의 공격야구를 표방한다.

2 7관왕 이대호의 위력 올해 관전대목 가운데 하나는 롯데의 '빅보이' 이대호의 공격력이다. 지난해 도루를 제외하고 타격 7관왕을 차지한 치명적인 공격력이 올해도 건재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수비도 1루수와 지명타자로 이동해 타격을 위한 조건은 모두 완성된 셈이다. 이대호의 타격은 거의 결점이 없을 정도로 절정기에 올라 있다. 다른 팀들의 마운드는 이대호 대책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아무래도 유인구가 많아지고 승부를 피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대호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질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대호의 전후 타자들도 홍성흔과 조성환 등 막강해 피해 가기도 어렵다.

3 류현진·김광현의 20승 경쟁 지난 1999년 현대 정민태가 20승을 따낸 이후 토종 20승 투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두산의 다니엘 리오스가 2007년 22승을 올렸을 뿐이다. 그동안 한화의 류현진, SK 김광현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20승 클럽에는 가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구위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어 올해도 20승 유력 후보로 꼽힌다. 다만 류현진은 한화타선의 지원, 김광현은 부상의 변수를 넘어야 한다. 두 선수뿐만 아니라 KIA 우완투수 윤석민이 20승을 따내겠다고 도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4 외국인 투수들의 득세? 팀의 성적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크다. 18명 가운데 투수들이 16명을 차지할 정도로 각 구단은 투수들을 대거 영입해 마운드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 두산 니퍼트는 최고의 성적으로 두산의 우승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 리즈는 시범경기에서 1백59km짜리 볼을 뿌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주키치와 함께 LG 4강을 이끌 견인차로 지목받았다. KIA의 좌완 트레비스 블랙클리도 10승이 기대되고 있고 아킬리노 로페즈는 15승을 노리고 있다. 한화는 오델리 페레즈를 영입해 마무리를 맡겼다.

5 신인왕은 누구의 품으로? 한화의 거물 신인 좌완 유창식이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깨통증으로 전지훈련이 늦어져 개막 이후 1군의 주력투수로 활약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임찬규(LG), 윤지웅(넥센), 홍건희(KIA), 이현호(두산) 등 투수들도 1군에서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야수 가운데는 외야수 정진기(SK)와 고종욱(넥센)이 빠른 발과 날카로운 타격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드러지는 신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신인들의 경우는 기회를 얼마나 보장받느냐에 따라 기량 성장세나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존 전력층이 두텁지 못한 팀의 신인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적지만 주어진 기회를 누가 빨리 잡고 존재감을 보여주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덕진산성에서 본 아침 풍경〉 덕진산성아래 임진강을 끼고 길게 누웠던 초평도의 아침이 밝아온다. 물안개 때문인지 임진강의 아침풍경은 수묵담채화처럼 은은하게 펼쳐진다.

‘냉전 언어’의 임진강에서 ‘미래 언어’의 임진강으로

황헌만 사진전 ‘임진강’

임진강이 아니라 ‘림진강’이라 해야 느낌이 온다. 림진강이라 발음하기 위해 입 속에서 혀를 차는 순간, 찡하다. 박세영이 시를 쓰고 고종환이 곡을 붙인 ‘임진강’은 노래한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황헌만(63·M2 스튜디오 대표)이 “임진강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은 사진가로서의 내 꿈”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래가 귓가를 스친다. “사진가로서 갖춰야 할 사명감, 내 나이 60을 넘어서면서 갖는 나의 화두, 이 땅을 본 감동을 황헌만 식으로 기록하여 전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멀리 북한산이 보인다〉

황헌만은 한마디로 '다 되는' 사진가다. 그는 스트레이트 사건사진부터 스튜디오 요리사진까지 삼십여 년 전방위로 한국 사진판을 누벼왔다. 그가 이룩한 사진 아카이브는 한반도의 자연과 역사를 두루 꿰고 있다. 그런 그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몸 바치듯 전력투구한 땅이 임진강이다.


〈자장리 적벽〉

하늘을 나는 새들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왜 임진강이었을까,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소설가 박태순(국토학교 교장)의 글에 담겨 있다. '냉전언어의 임진강에서 미래언어의 임진강으로'라 할까.

"황헌만 사진의 기억은 '오래된 미래'를 갈무리한다. 특히 이번의 그의 임진강 사진은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살아남게 될 것에 틀림없는데 그 사진담론 세계가 참으로 장구하면서 동시에 광대하기 때문이다…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시대,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 및 중국 당나라와의 쟁패 시대를 거쳐 고려–조선시대, 그리고 한말 의병전쟁 시대에서 8·15 해방공간의 국토분단 시대에 이르기까지 임진강의 산하는 파란만장하기 이를 데 없는데, 황헌만 사진의 기억은 이러한 파도와 물결의 만장(萬丈)을 들추어내고 있다."

벽에 걸린 작품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다. 그림일까, 사진일까.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아련한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다. 푸른 산들이 서로 몸을 포개며 물들어 가는 모습은 수인(水印) 목판화를 떠오르게 한다. 이미 사진이란 장르를 넘어선 그 풍경 앞에서 관람객들은 잠시 읍한다. 임진강의 풍경, 자연, 사람, 시간, 공간을 담은 사진은 건강하면서도 신비롭고 단단하면서도 애처롭다.

남북을 소통하는 강이면서 남과 북을 갈라놓은 경계의 강이 지닌 숙명을 황헌만은 담담한 기록이자 애끓는 이야기의 두 겹 결을 지닌 사진으로 풀어놓았다. 황헌만의 사진은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를 못하리라"는 이 땅의 꿈을 노래한다. G 글·정재숙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그대의 향기가

뮤지컬

● **광화문연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고(故) 이영훈 작곡가의 주옥 같은 음악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고인이 직접 기획하고 집필한 유작이다. 이영훈 작곡가는 '옛사랑' '사랑이 지나가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깊은 밤을 날아서' '붉은 노을' 등 많은 이의 가슴을 울린 명곡들을 탄생시켰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인의 주옥 같은 히트곡들이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속에 녹아 든다. 〈광화문연가〉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둔 형과 동생의 삼각관계를 이야기한다.

〈광화문연가〉는 국내 단일 작곡가의 대중음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도현, 송창의, 박정환, 김무열, 양요섭, 리사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연출 이지나, 음악감독 김문정, 안무 남수정, 무대디자인 박동우 등 각 분야의 최고 아티스트들이 이영훈 작곡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완성한다.

일시 2011년 4월 10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주)랑 1666-8662



랑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한 장면. 윤도현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주인공 '상훈' 역을 연기한다.

BMK뮤지컬컴퍼니



몬테크리스토



김종욱찾기

조선DB

● **몬테크리스토**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작품 속에 잘 녹여 시대를 초월한 대작이라 평가 받는 〈몬테크리스토〉가 뮤지컬로 부활했다. 사랑, 야망, 배신, 성공, 복수, 용서를 한 작품 속에 풀어냈다.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 혼의 매력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일시 2011년 4월 24일까지 **장소** 대학로 스타시티 TM스테이지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30-6600

● **김종욱찾기** 첫사랑을 찾아나선 여자와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가 티격태격 다투는 로맨틱 코미디. 한국뮤지컬대상 2관왕을 차지한 작품이다. 창작뮤지컬의 신화 김종욱찾기는 2006년 초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히트작이다.

일시 오픈런 **장소** 대학로 예술마당 1관 **관람료** 일반석 4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01-7888

연극



1 연합



2 악어컴퍼니



3 조선DB

● 나는 너다 한국을 넘어 동양평화를 주창한, 세계 역사가가 기억해야 할 영웅인 안중근의 삶과 그 뒤에 가려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영웅의 아들 안준생의 엇갈린 간극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사진1)

일시 2011년 5월 17일~6월 6일 **장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580-1513

● 엄마를 부탁해 국민소설에서 국민연극으로 거듭난 〈엄마를 부탁해〉가 광주를 찾는다. 연극 〈엄마를 부탁해〉는 우리 엄마의 인생과 사랑을 절절하게 그려냈다. 매회 객석점유율 90퍼센트 이상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손숙, 박웅, 김세동, 허수경, 김여진 등 실력파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다.(사진3)

일시 2011년 4월 23일 **장소** 광주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관람료**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20퍼센트 할인 **문의** 1588-0766

● 거미여인의 키스 〈거미여인의 키스〉는 두 남자의 치명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사랑을 다뤘다. 작은 감방 안에서 이뤄지는 동성애자 몰리나와 반정부주의자 발렌틴의 사랑 이야기이다.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섬세한 연기와 세련된 연출이 더해졌다.(사진2)

일시 2011년 4월 17일까지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64-8760

무용

● 발레 왕자호동 2010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폐막작으로 선정되었던 국립발레단의 발레 〈왕자호동〉이 새롭게 공연된다. 설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발레다.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낙랑공주라는 한국적인 여인상이 등장해 사랑의 위대함을 담는다. 서양의 예술장르를 우리의 고유문화와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일시 2011년 4월 22~24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8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7-6181

● 발레 돈키호테 유니버설발레단의 2011년 시즌 오프닝작. 희극발레의 대표작으로 화려함이 돋보인다.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의 좌충우돌 결혼 해프닝이 주요 스토리로 소설의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발레에서는 두 주인공의 결혼을 도와주는 조연으로 나온다. 경쾌한 웃음과 화려한 테크닉의 향연, 유쾌한 희극 발레로 재미있는 스토리 전개와 다양한 춤 등 무궁무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일시 2011년 3월 25~28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1555

서커스

● 태양의서커스 바레카이 전 세계 6백만 관객을 열광시킨 바레카이는 바람이 이끄는 곳 어디든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코믹하고 개성 있는 인물들의 연기와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고난도의 곡예를 선보인다.

일시 2011년 4월 6~24일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 **관람료** Tapis Rouge석 22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41-6235

정리·이미령 인턴기자

3월 넷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3월 13일~3월 19일

곡명	가수
1 가슴이 뛴다	케이윌 (K.Will)
2 가슴 시린 이야기 (Feat. 용준형)	휘성
3 미친거니 (Feat. 방용국)	송지은 (시크릿)
4 Tonight	빅뱅
5 내꺼중에 최고	에이트 이현
6 바람이 분다	이소라
7 한사람	다비치
8 가질 수 없는 너	현빈
9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 (IU)
10 Cafe	빅뱅

고흐에서 워홀까지… 꼭 보고 말거야!

아직도 미술관이 멀고 높게만 생각되시는지? 대전시립미술관의 '모네에서 워홀까지 한눈에 보는 근현대서양미술사' 등 2011년 주요 미술관, 화랑의 주요 전시를 소개한다. 올해 당신의 문화지수를 한 뼘 올려줄, 놓치면 아까운 전시들이다.

글 · 양성희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 www.moca.go.kr 02-2188-6000

김종학 '사계'전 3월 28일~6월 26일 설악산그림으로 유명한 서양화가 김종학(75) 회고전. 1979년 모노크롬 추상화가 지배하던 서울 화단을 떠나 설악에 둥지를 틀고 30년 넘게 설악만 그려온 화가의 대표작 1백여 점. 강렬한 원색의 색감과 생동감 넘치는 터치로 자연의 생명력을 그려내, 공허한 추상주의를 넘어 대중적 지지까지 확보.

마르셀 뒤샹 이후 현대미술 7월 16일~10월 16일 뒤샹 이후 전개된 프랑스 현대미술 조망. 프랑스문화성, 퐁피두센터, 모리미술관 협력. 로렝 그라소, 니콜라스 물랭 등 '뒤샹 프라이즈'를 수상한 프랑스 작가들.

올해의 작가 1995~2010 7월 31일~12월 3일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15년 동안 매년 한 명씩 선정한 올해의 작가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정리. 서세옥 노상균 정현 정연두 등 주요 작가들의 과거와 현재.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 | 02-2022-0600

미국 미술 1백년 휘트니 컬렉션 5월 24일~9월 13일 재스퍼 존스 등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현대 미술의 주요작 총망라.

미술관 협력전 Annoyance(거슬림) 9월 30일~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아르코미술관·소마미술관 공동주최. 인공적 공간의 '거슬림'을 주제로 한 미학 설치 영상. 청계천 광장을 중심으로 한 공공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 삼성미술관 리움 | www.leeum.org 02-2014-6900

궁중회화전 7월 31일까지 당대 최고의 실력을 지닌 도화서 소속 화원화가들이 그린 궁중회화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 왕실의 권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전시. '화성능행도 8곡병'(보물 1430호), '오재순 초상'(보물 1493호), '모란도 10곡대병' 등.

코리안 랩소디-역사의 횡단 3월 17일~6월 5일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와 전쟁, 분단,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이르는 격변의 현대사가 한국의 미술과 시각문화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 고찰. 미술을 통한 한국의 근현대사.

| 대전시립미술관 | dmma.metro.daejeon.kr 064-602-3200

모네에서 워홀까지 한눈에 보는 근현대 서양미술사 5월 24일~8월 28일 프랑스 제2 컬렉션을 자랑하는 생테티엔 근대미술관의 컬렉션. 유럽 인상주의에서 아방가르드, 팝아트, 누보레알리즘, 미국 미니멀리즘, 독일 개념미술, 이탈리아 아르테 포베라, 최근 경향에 이르기까지 1900년 이후 서양미술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감상. 피카소, 간딘스키, 리히텐슈타인, 레제 등.



대전시립미술관

페르낭 레제 붉은 배경의 세 명의 아가씨들 · 1927

| 예술의 전당 | www.sac.or.kr/gallery 02-580-1300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전 '고흐의 별밤과 빛의 화가들' 6월 4일~9월 25일 인상주의 거장의 작품을 대거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에게도 인기 높은 오르세미술관 소장품전. 한국에서 세번째 열리는 전시지만, 처음 한국을 찾는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과 모네의 '루앙성당', 밀레의 '봄' 등 주요작 공개.

2011 미술과 놀이-움직이는 미술관 7월 8일~8월 24일 키네틱 아트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전시. 동력, 전자장치를 이용하거나 센서, 각종 디지털적인 요소 등이 결합된 평면, 조각, 설치, 영상. 미술과 움직임의 관계를 조명해, 현대미술의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

우리시대 한국서화 거장 시리즈2-걸레스님 중광전 7월 11일~8월 28일 바보 미치광이 걸레를 자처하며 찬사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중광의 예술세계를 재평가. 선(禪)을 주제로 한 글씨 회화 전각 서각 도서 고각 행위예술사진 등 대표작 1백여 점과 관련 다큐멘터리, 중광을 다룬 영화 '허튼 소리', 연극 '난 똥이올시다' 등 영상자료를 함께 전시.

| 서울시립미술관 | seoulmoa.seoul.go.kr 02-2124-8800

베르나르 브네전 3월~4월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각가 겸 화가 브네의 회화전. 시기별 회화작품 소개. 브네는 무거운 철을 이용, 연필로 드로잉하듯 자유로운 선을 보여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호평 받은 작가. 수학적 모형을 작품에 도입해 상징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서울 시드니 미술관 교류전 5월~6월 한국·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립미술관과 시드니 ANSW주립미술관의 소장품 교류 전시.

서울 2011전 4월~6월 서울의 지역성과 정서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서울을 미술적으로 새롭게 해석.

City_net Asia 2011전 9월~11월 아시아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격년제 아시아 현대 미술전.

| 소마미술관 | www.somamuseum.org 02-425-107

월(wall) 스토리 3월 24일~5월 22일 미술관의 건축적 환경(벽)을 작품 일부로 편입시키는 흥미로운 콘셉트의 전시. 박기원 김승용 지하루 +그라함 등.

요세프 보이스 6월 9일~8월 21일 20세기 후반 현대미술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작가 요세프 보이스의 프린트, 필름, 오브제, 설치 작업.

조각가의 드로잉 9월 8일~11월 20일 올림픽공원에 조각작품이 설치된 작가 중 국내 조각가 30여 명의 드로잉을 집중 조명.



국립현대미술관

김종학 여름 냇가·2005



사비나미술관

이문호 상대성·2005

| 사비나 미술관 | www.savinamuseum.com 02-736-4371

다중감각 4월 15일 건축, 정신분석학, 과학기술과 접점을 찾은 젊은 미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 장르를 넘나드는 융합+창의적 발상을 '다중감각'으로 정의.

김승영 작가의 영상설치전 5월 4일~6월 4일

'STUDY' 7월 27일~8월 31일 고낙범·김명숙·김주현·이재삼·정현·황인기 그룹전.

| 아르코미술관 | www.artkoartcenter.or.kr 02-760-4850

황인기전 4월 29일~5월 25일 한국의 전통 및 역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국제성을 찾아내 동시대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의 전시. G

고구려에 망명한 북연 황제, 풍홍

'차고남' 장수왕, 망명객을 처치하다

(차가운 고구려 남자)

망명객 처지인 북연의 황제 풍홍은 고구려를 기반으로 북연을 다시 일으킬 꿈을 꾸었다. 장수왕이 이를 묵과 할 리가 없었다. 풍홍은 남송에 밀사를 보내 또 다시 망명을 요청했다. 이에 남송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풍홍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북위와 외교문제로 비화될 풍홍이란 폭탄을 고이 보낼 장수왕이 아니었다. 장수왕은 풍홍을 단박에 제거했다.



일러스트·이철원

장수왕은 이용가치가 없어진 북연 황제 풍홍에게 사신을 보내 멸시했다. 풍홍은 북연 재건의 꿈을 꾸고 장수왕에 맞서다 살해됐다.

북연을 둘러싼 사건(436년 고구려가 북연에 군사를 보내 인력과 물자를 약탈한 사건)이 벌어진 후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사건 직후 북위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북연 왕과 그 백성, 병력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수왕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에 북위의 태무제는 군사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다음 거사를 기약하자는 북위 낙평(산둥)왕 비(比) 등의 반대로 중지됐다. 이후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긴장과 대립 상태를 지속했다. 439년 이후 462년까지 양국 간에 한 차례의 사신 왕래도 없었다.

국제정세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정작 군사적 충돌은 고구려와 양쯔강 이남의 유씨(劉氏)의 송(宋) 사이에서 일어났다. 436년 장수왕은 북연 황제 풍홍과 북연인들을 랴오둥으로 옮겼다. 물론 이용가치가 없어진 풍홍에게는 황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양심이나 도덕·윤리에서 자유로운 사나이, 자기 목적을 수행하는 데서는 합리성과 현실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나이, 이런 것이 고구려 국왕이기 이전에 거련(巨連·장수왕)이라는 냉혹한 사나이의 본질이었다.

장수왕은 망명한 자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풍홍이란 인간이 온갖 공약을 해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상대해 주지도 않았다. 사신을 보내 조롱하기까지 했다.

"용성왕 풍군(馮君)이 벌판에서 행차하시느라 군사와 말이 피곤했겠습니다."

풍홍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한심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황제에게 왕이라니! 나는 천자다. 너희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고구려땅에서 황제노릇하려는 풍홍

장수왕이 보기에 그건 완전히 허세였다. 모든 것을 잃고 고구려에 더부살이하는 처지가 아닌가. 북연은 중원에서 쫓겨나 요서의 지방 정권이 된 후연의 왕위를 풍홍의 형 풍발이 찬탈하고 세운 나라다. 풍홍은 형 풍발이 죽자 친조카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왕위를 차지한 인간 도살자였다.

그의 본처 소생의 자식 풍숭과 풍랑(풍태후의 아버지)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북위로 망명해 북연을 망국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했

*장수왕은 망명한 자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풍홍이 온갖 공약을 해도 상대해 주지 않았다.
그 와중에 풍홍이 북위와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냉혹한 사나이 장수왕은 고구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자객을 보내
풍홍과 그의 아들, 손자 10명을 죽여 화근을 없애버렸다.*

다. 북연은 배신과 음모, 혈족 사이의 학살로 얼룩진 그야말로 저주받은 왕조였다.

장수왕은 냄새 나는 풍홍의 뻥에 기분이 상했던지 그의 거처를 랴오둥만과 가까운 평곽(平郭·현재 랴오닝성 능악성)에서 북풍(현재 랴오닝성 선양시)으로 옮겼다. 그곳에서도 풍홍은 자신의 나라에서 하듯 황제 행세를 했다. 백성을 마음대로 처리했으며, 형벌도 예전에 하듯 내렸다.

장수왕은 풍홍을 망명집단과 분리시켰다. 비서(侍人)들을 뺏고 아들 풍왕인(馮王仁)을 인질로 데려갔다. 북연인 사회를 해체해 고구려 사회 안으로 재조직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풍홍은 분개했다. 그는 고구려를 발판으로 백성을 규합해 북연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이었다. 어려운 입장으로 몰려 망명한 왕들이 언제나 꾸는 헛된 꿈이었다. 살기 위해서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꿈일지라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풍홍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천 리 바닷길을 통해 밀사를 보냈다. 그의 밀서를 소지한 사신의 배가 남조 양쯔강 남의 송(劉宋) 조정에 도착했다. 풍홍은 송으로 망명하겠다고 요청했다.

풍홍의 밀서를 받아본 것은 송의 명군(明君) 문제(文帝·407~453)였다. 송은 문제의 아버지 유유가 동진의 마지막 황제 공제로부터 선양 받아 세운 왕조다(420년). 역사에서 그 나라를 유송(劉宋)이라 부른다.

아버지 유유는 재위 3년 만에 죽고, 형인 소제(少帝·406~424)가 17세에 즉위했는데 아주 못쓰는 방탕한 사람이었다. 유유는 어린 아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 후견인 네 명을 선발하고 죽었다.

단도제·서선지·부량·사회 등 4인은 황제가 사춘기라 방탕함이 고쳐지기 어렵다 판단하고 그를 죽이고 동생 유의륭(劉義隆)을 모셔와 재위에 앉혔다. 그가 바로 송의 문제였다. 그는 음모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다. 4인방의 힘으로 황제에 올랐지만 그 존재 자체가 문제에게 부담이었다. 그는 단순한 사고를 하는 무장 출신 단도제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나머지 3명의 대신을 죽이고 조정의 인사를 대폭적으로 교체해 정부를 새롭게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 풍홍은 밀사를 통해 송 문제를 부추겼다.

"요동·요서에 송의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송 문제도 교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망명자의 말을 믿는 그는 정치바닥에서의 내공이 장수왕보다 한참 아래였다. 이로부터 1050년 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태어난 마키아벨리가 망명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수왕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劉宋과 내통하자 자객을 보내 암살

"망명 중인 인간의 말을 믿으면 큰 위험이 뒤따를 때가 있다. 그들이 운운하는 신의와 서약은 휴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이다. …중략… 망명 중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들의 종국적 목적인 귀국 실현의 수단으로서, 그에 도움이 될 법한 사람의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실현 불가능한 일도 무엇이나 예사로 약속한다."(정략론)

438년 문제는 일단 고구려에 사절을 보냈다. 왕백구(王白駒)라는 이가 단장이었다. 그들은 고구려에 도착해서 연왕 풍홍을 송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송나라의 말을 들어준다면 북위가 발끈할 것이다. 북위와 외교문제로 비화될 풍홍이란 폭탄을 고이 보낼 장수왕이 아니었다. 악덕일지라도 장수왕은 고구려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장수왕은 풍홍에게 자객을 보냈다. 풍홍과 그의 아들, 손자 10명이 비참하게 살해됐다.

풍홍과 그 일가족을 학살함으로써 북위와의 외교 문제 발발은 막았다. 하지만 그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몰랐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30년 후 북위 조정에서 권력을 잡은 풍홍의 손녀딸 풍태후가 장수왕에게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다. G

글·서영교 (중원대 박물관장)

| 글 싣는 순서 |



세방낙조는 기상청이 꼽은 한반도 제일의 낙조 명소다. 도로변에 낙조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운림산방서 돌린 발길 '세방 낙조'에 남도 가락이 절로

진도에 봄이 왔다. 향동재 넘어가는 굽이굽이 고갯길에는 아지랑이가 어지럽고 복사뼈를 덮을 만큼 자란 보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푸르게 물결친다. 진초록 대파밭과 나란히 놓인 노란 무장다리밭은 한폭의 추상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운림산방 연못가 수양버들에는 연둣빛 새싹이 돋았다.

해남 땅에서 겨우 2백93미터 떨어져 있는 진도. 진도대교로 뭍과 연결되어 있지만, 뭍과는 자연도 풍습도 사뭇 다르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신비의 땅, 순종 진돗개가 집집이 짖어대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없이 깊고 깊은 섬이다.

독특한 풍속이 남아있는 민속의 보고이자 남종화의 본산지인 예향, 섬 전체가 숱한 전란의 역사를 간직한 사적지이기도 하다.

진도 여행의 첫걸음은 운림산방이다. 전통남화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운림산방은 소치 허련(1808~1892)이 말년에 기거하던 화실이다. 소치는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에게 서화수업을 받아 시서화(詩書畵)에 두루 능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다. 추사는 소치를 두고 "압록강 이남에는 따를 자가 없다"고 극찬했다.

운림산방, 소치 허련의 흔적을 찾아서

시서화로 당대를 휘어잡은 소치였지만, 1856년 스승 추사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운림산방을 짓고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고독을 마주보고 살았다.

소치의 화맥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아들 미산 허형과 손자 남농 허건, 증손자 임전 허문까지 4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이런 까닭인지 '진도의 양천 허씨들은 빗자루만 들어도 명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운림산방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수양버들 두 그루가 맞이한다. 그리고 저만치 연못 건너로 보이는 아담한 한옥. 백일홍과 맥문동으로 둘러싸여 그윽한 정취를 풍긴다. 운림산방 앞 연못 운림지에는 수련이 활짝 피었다. 팽나무, 검팽나무, 생달동백 등이 연못가에 심어져 있다. 모두 소치가 먼 곳에서 구해 와 기른 것이다.

운림지 한가운데에는 조그마한 섬이 있고 백일홍이 한그루 심어져 있는데 소치가 직접 심은 것이라고 하니 줄잡아 1백50년은 된 듯하다. 늦여름이면 빨간 꽃을 피워 운림산방을 장식한다. 운림산방을 이리저리 거닐다 보면 이런 풍경 속에서 보낸 소치의 말년이 더없이 행복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운림산방 옆에 쌍계사가 있다.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쌍계사는 단출한 절이다. 요사채라고 해 봐야 원통보전, 대웅전 범종각이 전부다. 휘휘 둘러보는 데 20분이 걸리지 않는다.

대웅전 앞에 서서 대숲을 넘어와 절 마당으로 내려앉는 바람 소리, 바람이 흔들고 가는 풍경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날 선 마음이 어느새 누그러지는 것 같다.



운림산방은 소치 허련이 말년에 기거하던 화실이다. 배용준 주연 영화〈스캔들〉촬영지 이기도 하다.

역사상 세상 모든 풍요로운 땅이 그러했듯 진도 역시 차지하려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땅이다. 909년 고려의 국조 왕건이 견훤과 마지막 싸움을 벌였고, 1271년 고려 말에는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하기도 했다. 1894년 동학의 마지막 전쟁이 끝난 곳도 진도다.

진도에는 대몽항쟁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다. 임회면 남도리에 있는 남도석성과 용장산성, 등이 그것이다. 고려 조정이 몽고에 항복하자 배중손을 지도자로 한 삼별초는 왕족 승화 후 온을 새 왕으로 받들고 1천여 척의 배에 재물과 사람들을 싣고 남쪽으로 떠난다.

강화도를 떠난 지 두 달 보름의 긴 항해 끝에 진도 벽파진에 다다른 이들은 용장성에 터를 잡은 후 용장산성을 짓는다. 그리고 '오랑'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전주와 동래 등 경상, 전라도로 진격해 몽고군과 전투를 벌인다.

아픈 역사의 흔적이 또렷한 땅

삼별초 진도정부는 친몽고적인 왕실에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삼별초가 용장산성에 든 지 아홉 달째, 몽고군과 고려 정부군이 합동 공격을 해오고 결국 10여 일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임금 온과 배중손은 죽음을 당한다.

남도석성은 배중손이 여몽연합군에 쫓겨 최후를 마친 곳이다. 삼국시대에 쌓은 것으로 알려진 남도석성은 둘레 6백10미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성벽의 높이는 5~6미터다.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마친 남도석성. 성 내에 20여 가구가 있다.




몽고군과 전투를 벌였던 왕온의 묘앞의 석상.

남도석성은 성내에는 20여 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남도석성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일본 강점기 때만 해도 1백2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대처로 나가고 없단다.

석성을 둘러싼 개울에 놓여 있는 2기의 예쁜 다리도 놓치지 말고 볼 것. 동쪽에 있는 것이 단홍교, 서쪽에 있는 것이 쌍홍교다. 우리의 옛 '무지개 다리'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용장산성은 군내면 용장리에 있다. 몽고에 항복한 고려조정을 '괴뢰정부'로 취급한 삼별초가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다. 삼별초는 당시 둘레 13킬로미터, 높이 5척의 대형 산성을 축조했으나 지금은 산성의 일부와 왕궁터에 남은 주춧돌만이 남아 쓸쓸히 여행객을 맞고 있다. 운림산방 가까이에 있는 왕온의 묘 역시 석상 2기만이 쓸쓸히 무덤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의신면 모도리는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하다.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약 2.8킬로미터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1년에 3~4차례 갈라진다. 진도 사람들은 이것을 '영등살'이라고 부른다.

물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때는 봄(4, 5월)과 가을(10, 11월)에 각 3일 정도씩. 가을에는 새벽에 갈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 어렵고 봄에 열리는 물길이 가장 좋다.


노란 유채꽃과 푸른 파밭이 어우러진 진도의 봄 들녘. 한폭의 그림 같다


파밭에서 파를 뽑고 있는 아낙네.

진도 여행의 클라이맥스는 세방 낙조다. 지산면 세방리는 중앙기상대가 꼽은 한반도 제일의 낙조 명소다. 한반도에서 가장 늦은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데다 떠나기 못내 아쉬운 석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도로변에 낙조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마음으로 느껴야 알게 되는 그윽한 섬

저녁 7시 무렵이면 먼바다부터 슬금슬금 붉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일순간 캄캄해지며 순식간에 붉게 물든다. 양덕도, 주지도, 장도, 소장도 등 세방리 앞바다에 솟은 크고 작은 섬을 온통 삼킬 듯 붉게 물들며 덮쳐 오는 노을. 뚝 하고 떨어지는 햇덩이를 보면 일순간 눈과 가슴이 먹먹해진다.

진도는 차를 타고 휙 둘러보고 나오는 섬이 아니다. 깊숙이 몸을 들이밀고 마음으로 느껴야 비로소 진도를 알게 된다. 길을 가다 만나는 농부, 농부가 흥얼대는 자진모리 소리 한 자락,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춰 흔들리는 보리밭, 산 아래 무심히 서 있는 석탑, 마을 앞 그늘 짙은 비자나무 등 진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소하지만 그윽한 풍경들. 그 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서해안고속국도 목포 나들목으로 나와 영산호 하굿둑과 영암 방조제를 지나면 77번 국도. 우수영에서 18번 국도를 타고 진도대교를 넘으면 진도다. 남도석성은 18번 국도를 타고 팽목까지 가야 한다. 팽목에서 임회면으로 나와 지산면으로 가는 16번 군도를 타면 세방낙조 전망대. 운림산방은 진도읍에서 쌍계사 방면 표지판을 보고 가면 된다.

먹을 곳 검정쌀과 진도홍주, 돌미역 등이 진도 특산품이다. 진도읍 철마광장에 있는 **옥천횟집**(061-543-5664)이 이름난 한정식집. 세방리 낙조전망대 아래에 있는 **다도해관광회센터**(061-543-7227)는 전망이 좋다. 해산물과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 **우래식당**(061-544-2120)의 해물탕이 유명하다. 싱싱한 해물 20여 가지와 콩나물, 미나리 등을 넣고 끓여낸다.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잠잘 곳 **골드마운틴하우스**(061-543-8991), **노을이머무는집**(011-9404-3234), **진도한옥펜션**(010-4150-9935) 등의 펜션이 있다. **남도민박**(www.namdominbak.go.kr)에서 전라남도의 민박과 펜션, 한옥민박을 검색할 수 있다.

기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도향토문화회관**(진도군립민속예술단 061-544-8978) 대공연장에서는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등을 공연한다. 관람료는 무료. **운림산방**(061-543-0088)에서는 매주 토요일 11~정오 한국화와 서예품 경매가 열린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쓴 김난도 서울대 교수

“20대는 인생의 아침… 시간 탓 마세요”



허재성 기자

김난도 교수는 “독자 중심의 콘텐츠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같은 출판시장 불황기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50만 부 이상 팔렸다. 미래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멘토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저자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지난 3월 21일 만났다.

김 교수는 “저자 중심의 콘텐츠가 아닌 독자 중심의 콘텐츠를 전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한 5만 부 팔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출간 석 달 만에 50만 부가 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시대 청춘들이 너무나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는 스무 살에 대해 “좋을 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청춘을 잘 모르는 이들이라고 했다.

“저도 글을 쓸 때 제 입장에서 써왔습니다. 자기계발서는 ‘해라’ ‘살아라’ 등 주로 명령문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요즘 패밀리레스토랑에 가면 종업원이 손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추면서 주문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아이들을 쓰다듬어주는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고 싶었다”

김 교수는 서울을 비롯해 지방 대학생들까지 만나 설문조사를 했다.

“제 돈 들여서 대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우생활은 어떻고, 공부는 어떻고, 연애는 어떻고 등 조사를 해서 방향 잡아가면서 썼습니다. 소비자학을 전공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는 가까이서 관찰한 학생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어 그는 책 속의 인상적인 부분도 언급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데 나무가 잘 안 베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 톱날이 완전히 무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무꾼에게 ‘쉬면서 톱날을 날카롭게 하고 다시 베면 훨씬 빨리 벨 텐데요’라고 했는데 나무꾼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합니다. 두 배로 톱질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이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분주함 속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톱을 점검하듯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김 교수의 연구실 책상에는 인생 시계가 놓여 있다고 한다. 건전지를 빼놓아 움직이지 않는 시계인데, 매년 생일이 되면 18분씩 시곗바늘을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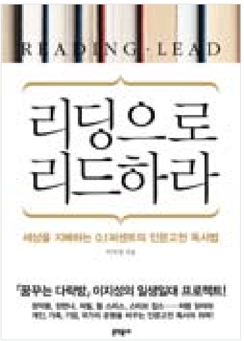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24시간을 80년으로 나누면 일 년은 18분간을 의미한다. 현재 그의 시계는 오후 2시경을 가리키고 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시계를 만들면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많은 학생이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좌절의 빌미로 시간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10대, 20대는 인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침에 해당하는 시기임에도 너무 늦었다고 여기곤 하죠.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기임을 알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G 글 · 이미령 인턴기자

아름다운 가방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지음
문학동네 펴냄 · 1만5천원

천재가 되고 싶은가? 그럼 인문고전을 읽어라!

'인문고전'이란 문학, 역사, 철학 등의 분야를 아울러 짧게는 일이백 년, 길게는 일이천 년 이상 전해 오며 널리 읽히는 작품, 기존의 사고와 양식에서 탈피해 비약적인 혁신을 이뤄낸 천재들의 저작을 일컫는다.

저자는 인문고전을 읽는 것을 "천재의 두뇌에 직접 접속하는 행위" "인류의 스승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깊은 정신적 대화를 나누는 일"에 비유한다. "만일 앞으로 10년 동안 매일 두 시간 이상 위대한 인문고전을 남긴 진짜 천재들에게 개인지도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이 책의 간명하면서도 강력한 시발점이다.

저자는 정치, 경제, 경영, 문학, 수학, 과학, 미술, 음악, 건축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천재치고 인문고전에 깊이 빠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으며, 인문고전 독서는 두뇌를 변화시키는 힘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역사 속의 천재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흔히 인문학을 '돈'과 대척점에 두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돈 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일수록 인문고전을 치열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인문고전 독서광이자 저자이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인문고전 독서에 정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고 사업가들이 인문고전 독서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인문고전이 두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것은 역사 속의 천재들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일수록 인문고전을 치열하게 읽어야 한다. 인문고전 독서광이자 저자들이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인문고전서에 정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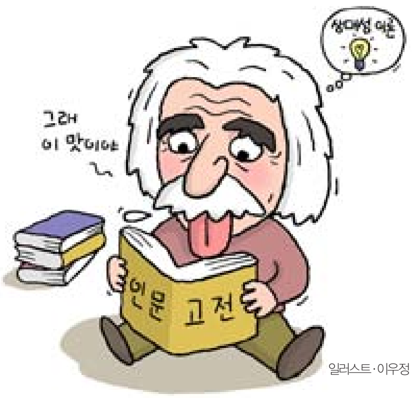
영국 런던 빈민가에서 접시닦이, 웨이터, 페인트공 등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던 조지 소로스는 1992년 런던을 떠난 지 36년여 만에 세계 금융계의 황제가 되어 다시 영국 땅을 밟았다. 그는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순간을 노려 영국 중앙은행에 도전해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투자 성공 비결을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나는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신드롬을 낳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경영에 적용한 대표적인 경영인이다. 그는 "인문고전 독서 프로그램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결정적인 힘이며, 서예 강좌에서 배운 감각이 매킨토시와 아이팟 디자인 감각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연설한 바 있다. 그리고 손자병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영자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며, 척박한 경영환경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저력은 손자병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한두 해 인문고전을 읽는다 하여 바로 두뇌가 변화하고 갑자기 천재가 되어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꾸준히 읽은 인문고전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혜의 깊이는 더해 가고 사고의 근원이 더욱 깊어진다면,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G

글 · 이현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일러스트 · 이우정

친정 엄마처럼!

글과그림 · 최영순



칭찬은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며,
이렇게 열린 마음은 넓은 아량을 키워준다. – 스미스 홀런드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일러스트 · 유현호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주목받는 G20국가다. 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구촌의 아픔도 함께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원조도 해주는 국가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남들은 우리보다 무척 잘사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못난 구석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늘 남들에게 뒤질세라 불안하다.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셀프 이스팀(self esteem)'이라는 말이 있다. 자존감으로 번역된다. 자아존중감이라고도 한다. 심리학 등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리 익숙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존감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소중한 존재로 가치부여를 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장점을 찾아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넉넉하고 여유 있고 당당하다. 그래서 늘 웃는다. 이제 우리 국민도 행복한 웃음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수용), 긍정적으로 인정하며(긍정적 인정), 나아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가치부여를 하고(가치부여), 스스로에게 만족하며(자족), 특히 장점을 찾아 존중하는 마음(존중)을 가리킨다. 이는 자존심이나 자만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외부의 쓸모없는 고정관념에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 사사건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웬만한 이런 의식에는 상처받지 않는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패배의식, 자기비하나 자학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넉넉하고 여유 있고 당당하다. 그래서 늘 웃고 다닌다. 어디까지나 '나는 나'다. 나는 나의 탄생과 생존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눈에 보이는 외면적 결과물을 기준으로 자신과 남을 비교한다. 돈의 크기, 권력의 크기, 명성의 크기, 인기의 크기 같은 것들이다. 거의 병적인 비교의식이다. 그래서 좀 더 큰 것을 얻은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 우쭐거리고 건방을 떤다.

반면 별다른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학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세상을 회의한다. 그것들은 모두 불행이다. 진정한 성공은 외면적 성공에 내면적 성공이 함께해야 한다. 그 내면적 성공은 바로 자존감에서 온다.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한 가지 잣대만으로 남과 비교해서 못 박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해 그것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로서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로젠버그의 자존심 척도검사에 나오는 질문사항에서 '나'를 '우리'로 바꾸어 평가해 보자. 먼저 적극적인 유형의 질문이다. ①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우리는 대체로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④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다음으로 소극적인 유형의 질문이다. ①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②우리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③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④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⑤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국민도 자존감을 높여 심리적으로도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의 웃음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복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G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2011 농협법 개정!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협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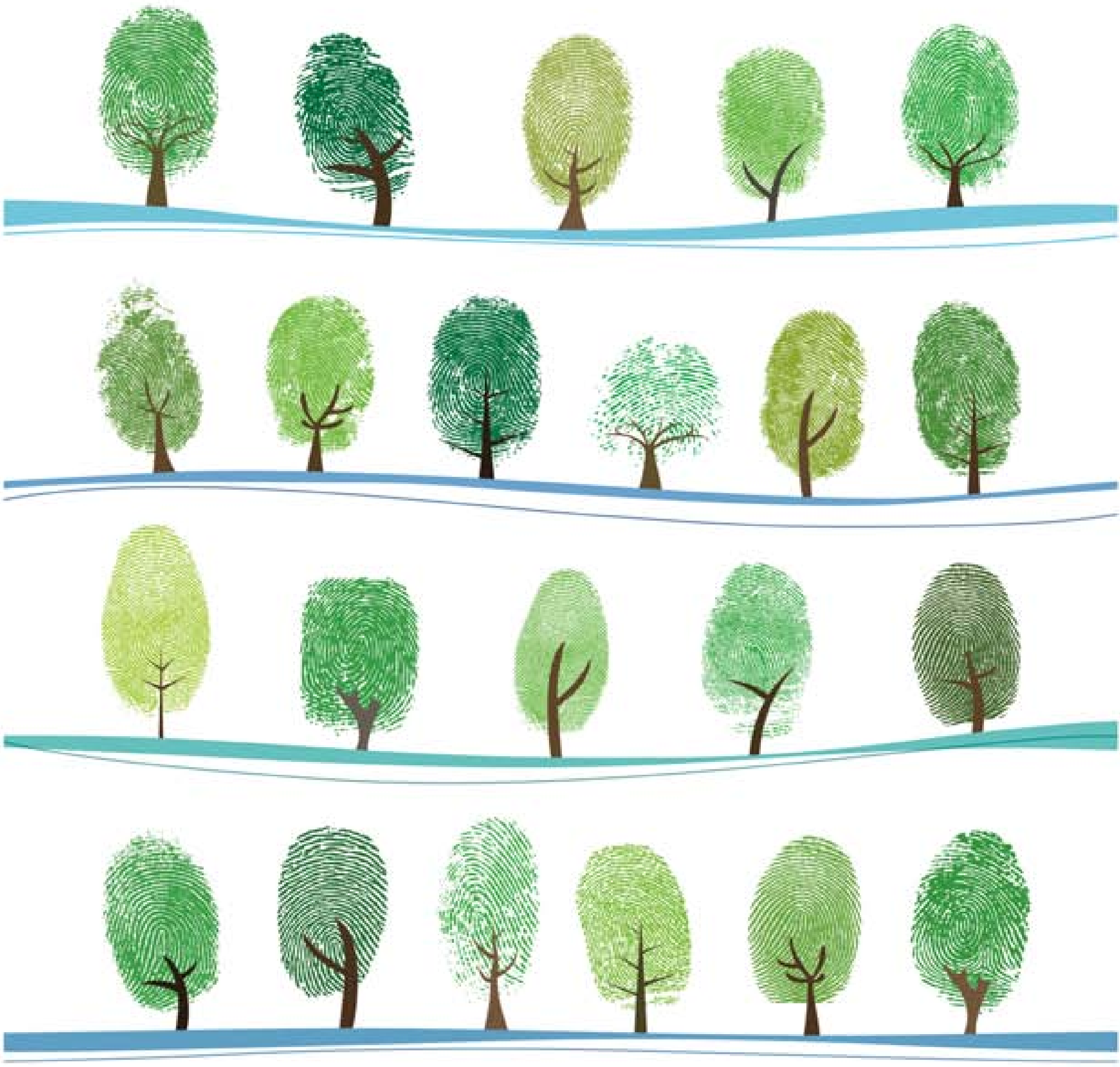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국민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농협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7년 만의 농협법 개정은 대한민국 농업을 더 강하게,
농업인과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출발입니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2011 · 세계산림의해
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 2011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산과 들과 강에 생명과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강산 나무심기」와 함께하세요!

우리강산이 테마 숲 조성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꾸며집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숲은 자연과 지역의 정서가 어우러지는 테마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희망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로 심는 나무에는 심으시는 분의 이름을 담은 표찰을 달아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강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즐거운 추억도 담아가세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소유하고 있는 나무를 가져오거나, 산림조합, 조경수협회, 종묘원 등에서 나무를 구입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참 여 대 상
개인, 단체, 기업 등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

신 청 방 법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에서 희망의숲 참여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 가능

안 내
산림청 산림지원과 T.042-481-4182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